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정 철
김봉근
정민철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정 철 · 김봉근 · 정민철

연구자료 22-15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인 쇄 2023년 5월 19일
발 행 2023년 5월 25일
발행인 김흥중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97-8 94320
978-89-322-2064-2(세트)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 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

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 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

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15
3. 연구의 구성	17
제2장 선행연구	19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19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24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31
1. 상품 다양성	33
2. 품질 다양성	36
가. 품목별 수입단가	36
나. 상대국별 수입단가	38
다. 다른 주류와의 수입단가 비교	40
라. 소비자 가격과 품질 다양성	41
3. 소결	48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50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52
가. 방법론	52
나. 자료	58
2. 실증분석 결과	60

3. 소결	6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0
1. 결론	70
2. 정책시사점	72
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에서 질적 대응의 역할	72
나. 유해재화세 운용에서 질적 대응의 역할	75
다. 무역 자유화와 품질 다양성의 후생효과	79
참고문헌	81
부록	86
1. 한국의 전체·농축수산물·주류 수입의 상품 다양성	86
2. 한국의 상품 다양성 변화와 수입액	90
3. 한국의 와인 수입 현황	94
4.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계수 추정치	102
Executive Summary	103



표 차례

표 3-1.	HS 10단위에 따른 와인의 구분	34
표 3-2.	와인 수입 금액, 물량, 단가	40
표 3-3.	연도별 와인 종류의 소비자가격 기초통계량	45
표 3-4.	원산지별 와인 종류의 소비자가격 기초통계량	48
표 4-1.	재화별 양적·질적 가격탄력성 추정치	63
표 4-2.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양적·질적 가격탄력성 추정치	64
표 4-3.	소득 수준별 담배의 가격탄력성 추정치	64
표 4-4.	소득 수준별 담배의 소득탄력성 추정치	66



그림 차례

그림 3-1.	한국의 품목별 와인 수입액	34
그림 3-2.	와인 수입의 세번 및 국가 수	35
그림 3-3.	와인 수입의 상품 다양성 및 수입액	35
그림 3-4.	돼지고기 및 곡물 수입의 상품 다양성	36
그림 3-5.	품목별 와인 수입단가 추이	38
그림 3-6.	상대국별 와인 수입단가 추이	39
그림 3-7.	주류별 수입단가 추이	41
그림 3-8.	원산지별 와인 종류의 소비자가격 분포	46
그림 4-1.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하향 대응(와인)	55
그림 4-2.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담배)	57
그림 4-3.	소득 수준별 담배의 양적·질적 가격탄력성 구성	65
그림 4-4.	소득 수준별 담배의 양적·질적 소득탄력성 구성	67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한국 전체 수입의 상품 다양성 비교: 2002년 vs 2021년	91
부록 표 2.	한국 농축수산물 수입의 상품 다양성 비교: 2002년 vs 2021년	92
부록 표 3.	한국 주류 수입의 상품 다양성 비교: 2002년 vs 2021년	93
부록 표 4.	한국 와인 수입의 상품 다양성 비교: 2002년 vs 2021년	93
부록 표 5.	변수별 기술통계량	102
부록 표 6.	재화별 실증모형 계수 추정치	102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1. 한국의 전체 수입에 대한 세번 및 국가 수 추이	87
부록 그림 2. 한국의 전체 수입에 대한 다양성 및 수입액 추이	87
부록 그림 3. 한국의 농축수산물 수입에 대한 세번 및 국가 수 추이	88
부록 그림 4. 한국의 농축수산물 수입에 대한 다양성 및 수입액 추이	88
부록 그림 5. 한국의 주류 수입에 대한 세번 및 국가 수 추이	90
부록 그림 6. 한국의 주류 수입에 대한 다양성 및 수입액 추이	90
부록 그림 7. 와인 수입액 추이	95
부록 그림 8. 와인 수입량 추이	95
부록 그림 9. 상대국별 와인 수입액 비중	96
부록 그림 10. 상대국별 와인 수입량 비중	96
부록 그림 11. 한국의 품목별 주류 수입액 및 비중	98
부록 그림 12. 한국과 세계의 와인 수입액	99
부록 그림 13. 한국과 세계의 와인 수입량	99
부록 그림 14. 한국과 주변국의 와인 수입액 추이	100
부록 그림 15. 한국과 주변국의 와인 수입량	100
부록 그림 16. 한국과 세계의 와인 수입단가	101
부록 그림 17. 한국과 주변국의 와인 수입단가	10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FTA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면서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이자 통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¹⁾ 수출과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FTA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데 유리한 또는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공평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셈이다. 이외에도 FTA 협상과 이행을 통해 국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경제 체질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FTA가 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발적 FTA 정책을 추진하던 초기에는 그 이익이 기업, 특히 대기업과 제조업에 국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 등 FTA 피해업종으로 분류된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도 지적되었다. 한편 이러한 개방형 통상정책이 소비자 후생이나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연구가 불충분하여 국가 경제에 대한 손익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제무역 이론과 다양한 국내외 실증연구 결과는 자유무역의 이익이 손실보다 전체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생산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의 사중손실(deadweight

1) 2023년 1월 기준 발효된 FTA 국가 및 건수.

loss) 방지를 통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면서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 발생한다. 결국 무역 자유화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조치로 사용되는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반면 무역 자유화는 이러한 왜곡을 개선하여 시장의 순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신무역이론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다양성 선호(love of variety)를 중심으로 산업간 무역보다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활발한 이유와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는 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과 국내 생산제품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수입품간의 경쟁 역시 촉발하면서 국내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이는 공급 확대가 가격을 하락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단순한 경제학의 시장원리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국가들과 차례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늘어나는 수입은 단순히 동일 상품의 공급(량)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나 원산지 등 제품의 특성이 다른 차별화된 상품(differentiated products)의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상품의 다양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이와 같은 다양성의 확보가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무역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원천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국제무역과 통상정책 연구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상품 다양성을 넘어 품질 다양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명시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기존의 학술 연구나 정책 집행은 FTA나 인플레이션 등 상품 가격이 변화할 때 소비자가 품질 차이를 이용한 질적 대응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²⁾ 따라서 통상정책의 성과나 FTA 효과 분석을 수행할 경우 단순히 양적 대응에만 치중해서는 무역 자유화의 효과를 올바르게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FTA

2) 질적 대응이란 다양한 품질을 포함한 집합체의 경우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자가 소비량을 줄이는 양적 대응 외에 품질하향을 통해 소비량이 아니라 품질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품 다양성과 달리 가격 차이에 따른 품질 다양성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발효로 관세 철폐와 그에 따른 국내 가격 변화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양적 대응뿐만 아니라 질적 대응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FTA 체결과 같은 무역 자유화 이외에도 팬데믹과 전쟁, 자연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경제위기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가격 변동에 소비자들이 양적으로만 대응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가격탄력성이 과대 추정되어 정책의 설계나 효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FTA로 관세 및 국내 가격이 인하된 와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되, 다른 외생적 요인으로 가격 변동을 경험한 재화를 추가 분석 대상으로 삼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 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소득 분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로 인한 소비자 후생 효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무역 자유화로 수입이 증가한 주요 수입소비재로서 와인의 품질 다양성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효과를 추정한다. 여기서 품질 다양성 유도 메커니즘으로서 가격 및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와인 외에도 담배와 쌀, 돼지고기와 같이 정책 또는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분석하고 경제위기 극복 메커니즘으로서 품질 다양성 효

과를 고려한 소비자 후생 변화가 주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나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켜 정부의 긴급 대응책을 발동시킨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병목 현상이 나타나자 2020년 3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는 한편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정부와 통화당국은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는데, 경제위기와 저소득층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과도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기존 연구가 대부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간과하고 있어 실제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치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로 인해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가격이 급등할 때 소비자가 기존 상품을 품질이 더 낮은 상품으로 대체하는 질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총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지출액은 줄여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정책 외에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정책효과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정책의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문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겠지만, 담배나 소다와 같은 유해재화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할 경우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하향 대응(quality shading)이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정책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품질 다양성 확대가 오히려 정책에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정책 수립 시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격탄력성의 질적 마진을 포함한 더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책

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물가 수준을 판단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CPI와 PCE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2022년의 경우 두 지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더 힘을 받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CPI는 2년마다 품목 비중을 갱신하는 반면, PCE는 분기마다 갱신하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대체효과를 더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품질 다양성과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소비자의 질적 대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론과 모형, 다양한 실증분석 연구를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Deaton의 준이상수요체계(AIDS: 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과 분리선호 가정의 역할,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농업 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국제무역의 수요 분석에도 종종 활용되는 품질조정가격 방법론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한다. 특히 무역 자유화의 효과 분석에 필요한 가격탄력성 추정에서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을 구분하는 방식의 중요성과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또한 무역 자유화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포함하여 보건 및 조세 정책과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정책시사점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의 차별화된 정책적 기여방안을 논의한다.

제3장은 한국의 통관자료를 이용하여 무역 자유화로 인해 가격 하락과 수입 급증을 경험한 수입 와인의 상품 다양성 및 품질 다양성을 고찰한다. 또한 한국 소비자원이 수집한 대형마트에서의 와인 판매가격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품질 다양성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제4장은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모형을 소개하고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또한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어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무역통상정책, 조세정책 및 보건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5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및 연구방법론 관련 논의, 와인 수입의 다양성에 대한 통계 분석, 품질 다양성 확대와 소비자의 질적 대응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와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 추진을 중시하는 통상정책과 함께 다양한 국내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대내외 정책의 균형과 일관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재화의 가격에 외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세 인하나 물품세 부과와 같은 정책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은 수요탄력성의 추정과 활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율의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의 변화나 수입관세 인하로 인한 와인 소비의 변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연구에서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비정규직 고용의 상대적인 감소를 통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나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무역 자유화의 미시적인 효과에 대한 최근의 관심으로 인해 외생적인 가격 변동이나 소득 변화에 대한 소득 수준별 가격탄력성 또는 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들의 실증분석에서는 주로 총량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재화별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지출액을 소비량으로 나누어 도출되는 단위가격을 가격변수로 활용한다. 주류와 같이 큰 분석단위보다 세분화된 와인이나 담배, 쌀과 같은 재화를 분석 대상으로 할지라도 이 재화들은 여전히 다양한 품질의 상품을 포함하는 집합재이다. 이 경우 한 가구의 재화별 지출액이나 한 국가의 재화별 소비액 모두 소비량이라는 양적 선택과 소비량 내에서 다양한 품질재의 구성을 나타내는 질적 선택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Andalón and Gibson(2017)의 연구에 따르면 단일재를 가정한 통상적인 수요 분석은 질적 선택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생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양적 소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격탄력성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시사점 해석에서도 상당한 오

류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질적 선택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가격의 질적 탄력성의 존재에 대한 최근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 질적 대응 패턴을 추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잠재적인 경제위기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소비자의 양적 선택과 질적 선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실증분석은 McKelvey (2011)에서 출발하나, 그 기초가 되는 선행연구는 상당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본 절의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는 Chung, Chung, and Kim(2022)의 와인 소비 관련 연구와 고석홍(2020)의 담배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관련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추가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질적 대응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단위가격 (unit value)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별 지출액을 소비량으로 나누어 단위가격을 도출하는데, 이는 가격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품질재 구성의 선택에서 오는 질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단위가격을 가격변수로 대체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연구는 단위가격에서 질적인 요소를 빼내는 조정방법(quality adjusted price method)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Cox and Wohlgenant(1986)는 먼저 소득 등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대해 단위가격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단위가격에서 품질요소를 제거한 품질조정가격을 도출한다. 이후 다음 단계인 본격적인 수요 분석에서 품질조정가격을 가격변수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처럼 소득 등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적 선택 부분을 먼저 제거하는 방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만큼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응용연구에서 그대로 활용되거나 약간의 개선 작업을 추가하여 사용되어왔다. 일례로 Park and Capps(1997)의 연구에서 담배와 같은 특정 재화를 소비하지 않는 가구 비중이 높을 경우 이로 인

해 발생하는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를 보완하는 식이다.

이러한 품질조정가격 방법론은 직관적일 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되어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품질조정가격 방법은 전통적으로 농업경제학 분야의 식품수요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왔으나 근래에는 국제무역의 수요 분석³⁾이나 여행 산업의 수요 분석⁴⁾ 등으로 그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동 방법론은 활용 빈도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등 가구의 특성만으로 질적인 선택요소를 통제할 뿐, 가격상승에 의한 품질하향 대응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⁵⁾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인 Gibson and Kim(2019a)과 Chung, Chung, and Kim(2022)에서는 품질조정가격 방식으로 도출한 가격탄력성의 추정치가 실제 양적 가격탄력성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이고, 기존 연구에서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활용해온 품질조정가격 방법론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하향 대응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품질조정가격 방법론이 특정한 특성(예를 들어 고소득)을 가진 소비자가 두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품질과 소비량을 선택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는 일차적으로 품질이나 이를 나타내는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고 시장의 외생적인 가격충격에 대해서는 이미 첫 단계에서 선택한 품질을 변화시키는 대신 소비량의 변화만으로 대응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검증이 필요한 가설이지만 독립적인 가격변수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위가격과 구분되는 질적 요소에서 독립된 가격변수를 활용

3) Kim *et al.*(2015).

4) Fleischer and Rivlin(2009).

5) Gibson and Kim(2017)은 지난 30년간의 조정단위가격 방법론 사용 빈도에 관한 통계적인 분석을 제시하면서 Cox and Wohlgemant(1986)가 농업경제학 대표저널인 AJAE(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에서 지난 30여 년간 가장 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로 선정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하는 최근 연구들⁶⁾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분석도 독립적인 가격변수를 활용
해 동 가설을 검증한다.

양적 선택과 질적 선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식의 출현은 Deaton(1988,
1990)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Deaton의 연구는 가격변수의 부재로 인
해 가격 상승에 따른 질적 대응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지 못하고, 대신 분
리선호 가정 등의 이론적인 방식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도출하였다. 문제는 이
처럼 간접적으로 추정한 Deaton의 연구는 소비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질적 대
응이 거의 미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Deaton(1990) 이
후 품질조정가격 방법이 사실상 단위가격 활용의 표준적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활용 빈도가 급증한 품질조정가격 접
근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서베이 결과는 Gibson and Kim
(20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격에 대한 품질하향 대응을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Deaton 연구방법론의
핵심인 분리선호 가정은 McKelvey(2011)를 필두로 재화의 지역별 시장가격
처럼 독립적인 가격변수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한 다수의 연구에서 기각되어왔
다. Gibson and Kim(2013)은 베트남의 쌀 가격 상승에 상당히 큰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함을 보였다. 동 논문은 관련 선행연구들이 소비자들의 쌀 가
격 상승에 대한 하나의 대응전략으로서 비싼 쌀 대신 품질이 낮은 쌀 소비로 대
체하는 소비자의 품질하향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 쌀의 가격탄력성을 과도하게
높게 추정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질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탄력
성 추정치에 근거하여 제시된 정책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Deaton 방식에 의해
간접적인 질적 가격탄력성이 미미할 정도로 작게 나타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파푸아뉴기니의 담배 소비에 대한 질적 대응을 고려하여 금연이나
담배 소비량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담뱃세 정책의 타당성을 연구한 Gibson
and Kim(2019a)에서도 분리선호 가정을 바탕으로 한 Deaton 방식의 추정

6) Gibson and Kim(2019a); Chung, Chung, and Kim(2022).

치에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분리선호 가정의 타당성 여부에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Gibson and Kim(2015, 2019b)에서는 거의 모든 식품재의 경우에서 동 가정이 기각됨을 보였다.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본 연구의 실증방법론은 최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담뱃세 등 보건과 재정목표를 포함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할 경우 보다 유효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Chaloupka *et al.*(2010)은 과세 방식에서 상대가격의 변화가 없는 종가세보다 저품질재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품질재로의 대체를 방지하는 종량세 방식이 보건정책에 더 적합함을 주장하였으나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품질하향 대응은 고려하지 않았다. 종량세의 경우 저품질 담배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품질재의 수요 감소와 전체적인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품질하향 대응에서 비롯되는 저질 담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일 담배와 같은 유해재의 경우 저품질재가 고품질재에 비해 건강에 더 해롭다면, 보건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종량세 과세 방식이 더욱 선호되어야 할 것이다. Gibson and Kim(2019a)도 파푸아뉴기니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담배의 경우 상당히 큰 질적 가격탄력성을 가지며 따라서 담뱃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필터가 있는 수입 공산담배를 필터가 없고 저렴한 종이 말이 담배(rolling tobacco)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품질의 재화 소비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품질하향 대응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ibson and Kim(2019a)의 방법론을 원용한 고석홍(2020)은 담배 수요의 질적 가격탄력성을 구분하여 추정한 최초의 국내 연구로, Gibson and Kim(2019a) 방법론을 사용한 추정치와 통상적으로 단일재를 가정한 수요 추정 방법론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연구방법론에 따라 가격탄력성의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제4장의 [표 4-2]에서 인용하는 주요 선행연구인 베트남의 쌀과 파푸아뉴기

니의 담배 분석은 횡단면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이고, Chung, Chung, and Kim(2022)과 고석홍(2020)은 한국의 총량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이다. [표 4-2]는 자료 형태에 무관하게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유의하게 존재하며, 그 크기도 통상적인 가격탄력성(질적·양적 가격탄력성의 합)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인다. 이 연구 결과는 국가별 질적 가격탄력성의 차이와 대상 국가들의 다양한 경제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소득 수준별로 상이한 질적 반응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득 수준별 질적 가격탄력성과 질적 소득탄력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다.

한편 외생적인 가격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의 질적 대체 행위는 경제위기 등 외부적인 소득 충격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전략과도 연계된다. McKenzie, Schargrotsky, and Cruces(2011)는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전략으로 상품 구매 시 평상시보다 더 저렴한 재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행태를 보임을 분석하였다.⁷⁾ Chen and Juvenal(2018)은 경제위기 동안 와인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 대신 보다 낮은 품질의 값싼 와인을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 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소비행위를 설명하였다.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무역이론에서 무역 자유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공급 측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자 잉여와 수요 측면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감축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합인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교우위에 초점을 맞춘 고전적 무역이론과 달리,

7) 구매가격의 변화를 시도하는 소비자의 또 다른 명시적인 대응전략인 대량구매 행위를 통해 구매가를 낮추는 행위(bulk discounting)에 관한 연구(Gibson and Kim, 2018)도 있다. 동 연구는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에 적절한 가구 규모와 대량(사전)구매에 따른 예산이나 저장 공간의 확보에 관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 유무도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다.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에서는 무역으로 인해 증가한 상품 다양성이 소비자 후생을 더욱 증진시킨다. 즉 상품 다양성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의 효율성 증대라는 고전적 이익에 더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천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통상정책을 통한 무역 자유화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이고, 둘째는 상품 다양성 증대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본 절의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는 서진교 외(2012)와 Chung, Chung, and Kim(2022)의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일부 재정리하고 미·중 간 무역전쟁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를 추가하여 무역 자유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이론과 달리 현실세계에서는 FTA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즉시 체감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진교 외(2012)는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포괄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으로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재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수입 소비재의 독점적 공급구조와 제한적인 시장 경쟁 및 국내 유통구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한편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비중과 상품 다양성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도 무역 자유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보였다.

Feenstra(1994)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상품 다양성의 효과를 분석한 Broda and Weinstein(2006)은 1972~2001년 기간 상품 다양성에 따른 미국의 무역이익이 2001년 GDP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Broda and Weinstein(2006)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스위스 데이터를 분석한 Mohler(2011)는 1990~2006년 기간 상품 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의 이익이 2006년 스위스 GDP의 0.27%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진교 외(2012)의 상품 다양성 효과 분석도 Mohler(2011)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위스나 한국의 대체탄력성이 미국보다 높게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연구 결과에서 추정된 무역의 이익에 이처럼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는 미국에 비해 스위스와 한국에서 수입상품의 차별화 수준이 낮았다는 점과 상품 다양성 증가 속도가 미국에 비해 느렸던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Feenstra(2010)는 Arkolakis *et al.*(2008)의 단순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146개국에 대해 1996년 기준 상품 다양성 증가에 따른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수입 비중의 증가 또는 대체탄력성의 감소가 수입으로 인한 상품 다양성에서 비롯한 무역이익을 증가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서진교 외(2012)는 지난 20년간 상품 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이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 수입 비중을 사용할 경우 8.3%에서 21.7% 범위 내에 있으며, 내수용 수입 비중을 이용할 경우 4.7%에서 12.8%의 범위에 있음을 보여 다양성 증가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무역 자유화와 반대로 관세 인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무역전쟁 사례가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관세가 인상되었던 2018년 전후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역전쟁 직전 미국의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3% 수준이었으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24%까지 치솟았다.⁸⁾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평균관세율 7.5%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24% 이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은 2018년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상품 가격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pass through) 되었음을 보여준다. 수입가격 인상과 그로 인한 경쟁 약화로 국내 산 가격이 1%p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매월 14억 달러의 실질소득 감소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Fajgelbaum *et al.* (2020)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수입이 32% 감소했으며 중국

8) 연원호 외(2020), p. 17, [그림 1-1] 미·중 대상대국 평균 관세율 추이.

의 보복으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11%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후생 효과(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포함)는 미국에 연간 78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무역전쟁이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실증연구 결과는 무역 자유화의 후생증대 효과와 부호는 반대로 나타나지만, 관세의 변화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Feenstra(2010)에 따르면 신무역이론이 1970년대 말부터 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다양성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무역이익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제품의 차별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체탄력성의 추정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낮은 대체탄력성을 이용하여 소비자 후생을 추정할 경우 무역이익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Harris(1984)의 연구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캐나다가 얻는 무역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독점적 경쟁시장을 통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모형에 포함시킨 데 반해, 무역이익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편(bias) 때문에 제품 차별화는 모형에서 부차적인 요소로만 처리하였다.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의 편(bias)로 인해 수요공급 체계에서 수요탄력성을 따로 추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해야 하는데 마땅한 도구변수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Feenstra(1994)는 패널자료 형태로 된 국제무역 통계에서 상품수출국(source country)간의 Armington(1969) 대체탄력성을 이용해 이러한 식별(identification)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Feenstra(1994)의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교역재간의 대체탄력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앞서 소개한 Broda and Weinstein(2006), Mohler(2011), 서진교 외(2012)의 연구는 상품 다양성 효과와 수입물가지수의 교정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효과를 고려한 무역이익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Feenstra

and Weinstein(2010)은 트랜스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무역 자유화의 가격 및 후생효과를 구조적으로 추정하였고, Blonigen and Soderbery(2010)는 미국 자동차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 다양성의 가격 및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수입 통계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후생 증대가 있음을 보였다. 그 외에도 Arkolakis, Costinot, and Andres Rodriguez-Clare(2012)와 Arkolakis *et al.*(2008)은 미시자료가 아닌 총량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도 무역 이익의 측정이 가능함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가 가격 하락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 중에서 품목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적 대체를 감안한 연구는 드물다. FTA와 소비자물가 관련 실증연구로서 박노선, 임호성(2018)은 FTA 체결이 늘어나 국제무역이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었는지를 72개 품목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가격(the but-for price)' 개념을 이용하여 가격 결정 방정식을 설정한 후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소비자물가지수 수준을 추정하여 실제 물가와 비교한 결과, 2004~15년 기간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0.76%p 인하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FTA의 가격 하락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수입제품의 품질을 고려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제홍(2013)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로 국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면 구매효과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 하락이 크지 않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구매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품질, 브랜드 및 디자인, 실용성 등의 요인이 구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격, 접근성, 편리성 등은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2019)은 소비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FTA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66.6%로부터 하

락했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이는 과거 2015년(32.7%) 및 2016년(42.8%)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일부 품목별 수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주류와 와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수입 주류 및 와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3% 및 85.7%가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했으며, 66.4% 및 54.7%가 가격이 하락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75.5% 및 78.0%의 응답자가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와인의 구매처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가의 품목이 판매되는 백화점에서의 구매 비율이 12.2%에 달해 같은 수입 주류인 맥주(1.2%)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FTA에 따른 수입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상품의 질적인 특성과 함께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국내 연구로 황문연, 이학노(2016)는 Heien and Sims (2000) 모형을 이용하여 한-칠레 FTA가 한국의 와인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칠레산 와인 수입량의 결정 요인으로 소득, 가격, 기호를 고려했으며, 여기서 가격은 칠레산 와인 수입단가를 제3국산 와인의 수입단가로 나눈 비율(상대가격)로 정의했다.⁹⁾ 또한 기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의 외식비 비중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¹⁰⁾ 분석 결과 칠레산 포도주 수입량과 소득, 가격, 기호(외식비 비중) 사이에 장기균형 관계가 있으며, 한-칠레 FTA와 수입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FTA의 무역창출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무역 자유화를 통한 가격 인하나 상품 다양성 증대가 분명 무역의 이익과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실제 생활에서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통계자료의 제약이나

9) 황문연, 이학노(2016)에 따르면 한국의 포도주 수입가격은 프랑스산·미국산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스페인산, 남아공산이 저가이며, 칠레산은 이탈리아산과 함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최희진, 최병호, 변광인(2005)은 포도주 수입량이 가계의 외식비 지출액과 양의 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가격탄력성의 편의 발생 문제, 연구방법론의 차이 등의 이유로 인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상충하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Deaton(1988)의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재화 비중과 단위가격을 두 개의 종속변수로 하는 연립추정방정식을 통해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을 소비자가 동시에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론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 가능성도 허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정직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보다 유효하고 적절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무역 자유화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해소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입절차의 간소화와 각종 탐색 비용의 절약 등은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수입 증대에는 기존의 수입품을 양적으로 더 많이 수입하는 내연적 확대(intensive margin)와 새로운 상품 종류를 수입하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외연적 확대(extensive margin)가 있다. 결국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를 통한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소비 증대, 수입품의 종류가 많아지는 다양성 확대가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 증대 요인이다.

국제무역 분야에서 품목의 다양성은 HS코드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이는 상품무역의 실제 이행과 관련 통계의 집계가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내재된 특성(원재료, 기초물질, 가공 정도, 용도, 기능) 그리고 산업의 원천' 등에 따라 부여되는 HS코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HS_8703)의 경우 가솔린 경차(HS_8703.21)와 디젤 대형승용차(HS_8703.33) 그리고 전기차(HS_8703.80)는 자동차라는 하나의 상품 내에서 각기 다른 종류로 인식되며, 만일 전기차가 새롭게 수입된다면 이는 다양성이 확대된 것으로 본다. 한편 Armington(1969)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다른 국가(원산지)로부터 수입된 경우에 각기 다른 종류로 인식되며, 같은 상품을 새로운 국가로부터 수입하면 이 역시 상품 다양성이 확대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의는 Broda and Weinstein(2006), Mohler(2011), 서진교 외(2012) 등의 연구에서 무역과 상품 다양성을 논의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왔다.

상품의 다양성은 HS코드에 기초한 통관자료 외에도 기업 수준의 자료나 표

본조사 자료 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¹¹⁾ 일례로 한국소비자원(2021) 등은 문헌조사·현장조사·인터뷰를 통해 조사 및 집계한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의 와인 수입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수입산 와인의 가격 변화, 유통 실태, 소비 현황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자료는 앞에서 설명한 통관자료의 경우와는 달리 체계적이고 전수적인 데이터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다양성에 대한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품 다양성 외에 품질(quality) 다양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비록 동일한 기능 및 특성을 가지는 품목(예: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동일한 HS코드를 가진 전자자동차)일지라도 모델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데이터상에서 이러한 품질의 차이는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입단가의 차이에 기초하여 품질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 최초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의 논의 단계부터 수입을 통한 다양성 증가의 상징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와인의 상품 다양성과 품질 다양성의 변화를 고찰한다. 먼저 HS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관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와인의 상품 다양성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수입통관 자료의 수입 금액 및 물량 통계를 이용하여 수입단가를 계산하고 와인의 품목별·원산지별·시점별 품질의 다양성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한 세부 품목별 가격 자료의 구조를 살펴보고, 수입 와인의 품질 다양성을 조사한다.

11) Blonigen and Soderbery(2010)는 Broda and Weinstein(2006)의 방법론을 기업 수준 자료에 적용하여 미국 자동차 산업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1. 상품 다양성

통관자료를 기초로 하는 수입 와인의 상품 다양성은 HS코드와 원산지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와인은 국제공통코드인 HS 4단위(호; heading)에서 HS_2204로 HS 6단위(소호; sub-heading)에서는 품목의 특성(스파클링, 일반, 줍) 그리고 와인이 담겨 있는 용기의 용량에 따라 3가지(0~2L, 2~10L, 기타)로 구분된다. 와인은 HS 6단위 기준 2016년 이전까지는 4개 코드로 분류되었으나 2017년 'HS_2204.22(2L 초과 10L 이하 용기에 담은 것)' 코드가 추가되면서 현재는 5개 코드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수입이 많은 품목은 '2L 이하 용기에 담은 것(HS_2204.21)'으로 2021년 기준 한국 와인 수입의 83.8%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용기의 용량과 관련하여 2017년 새로 신설된 '2L 초과 10L 이하 용기에 담은 것(HS_2204.22)'의 수입 비중은 0.7%, 그리고 '기타 포도주(HS_2204.29)'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한국의 세번(tariff line)으로 적용되는 HS 10단위(HSK) 코드에서는 3종의 일반 포도주(HS_2204.2-) 하부에서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기타 3가지의 세부 코드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HS 10단위 기준에 따르면 와인은 2016년 이전 8가지 및 2017년 이후 11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만약 용기의 용량에 따른 구분을 제외한다면, 수입이 이루어지는 와인의 종류는 5가지(스파클링, 레드, 화이트, 기타, 포도즙)로 보다 단순하게 구분된다. 5가지 종류 구분에 기초한 세부 품목별로 한국의 와인 수입을 살펴보면, 레드와인의 비중이 2002~21년 누계 68.4%로 가장 크며, 이어서 화이트와인(16.7%), 스파클링와인(13.0%) 순이다. 최대 수입 품목인 레드와인의 비중은 2004년 78.4%, 2012년 70.5%, 2021년 63.6%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스파클링와인은 2006년 이전까지 와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었으나 2017년 19%, 2021년 13.9%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의 와인 수입이 레드와인 중심에서 스파클링와인 등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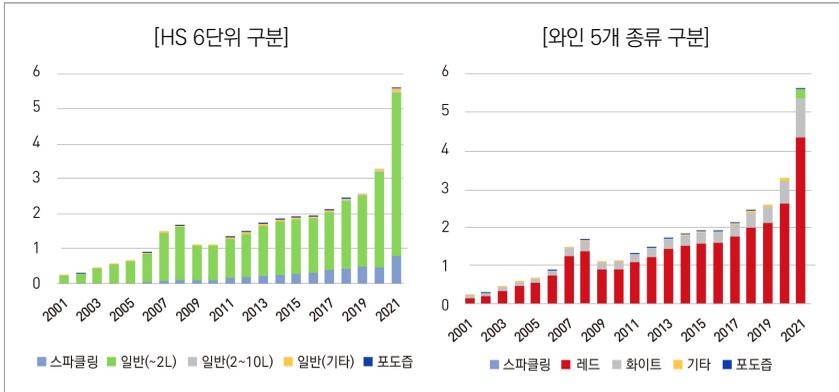
표 3-1. HS 10단위에 따른 와인의 구분

HS_2204. 10. 0000. : 발포성(스파클링: sparkling) 포도주(와인)	1
----. 21. : 2L 이하 용기에 담은 것	
. --. 1000. : 붉은(레드) 포도주	2
. --. 2000. : 흰(화이트) 포도주	3
. --. 9000. : 기타	4
----. 22 : 2L 초과 10L 이하 용기에 담은 것(HS 2017 신설)	
. --. (상등)	5, 6, 7
----. 29 : 기타 포도주	
. --. (상등)	8, 9, 10
----. 30. 0000. : 기타 포도즙(알콜 함유가 0.5%를 초과)	11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검색일: 2022. 12. 2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 한국의 품목별 와인 수입액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HS 10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와인 수입은 2002~16년까지 7~8개 품목, 3개 코드가 신설된 2017년부터는 11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와인 수입이 이루어지는 상대국(원산지)의 수는 2002년 37개국에서 2021년 73개국으로 2배 가까이, 연평균 3.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EU와 미국 등 와인 산지가 많은 국가들과 FTA가 체결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중반에 크게 늘어났다.

수입 와인의 상품 다양성 증가를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HS 10단위 품목의 수(이하 '다양성'으로 표기)'를 계산하면, 2002년 122개에서 2021년 313개로 연평균 5.1% 증가했다.¹²⁾ 추세적으로도 연도별 부침은 있으나 계속해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08년과 2021년에 전년대비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는데, 두 시점 모두 공통적으로 평년대비 수입액이 크게 높았던 시기이다. 오히려 HS코드의 세분화(8종→11종)가 이루어졌던 2017년의 다양성은 251개로 전년도(255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다양성 집계에서 HS코드의 분화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³⁾

그림 3-2. 와인 수입의 세번 및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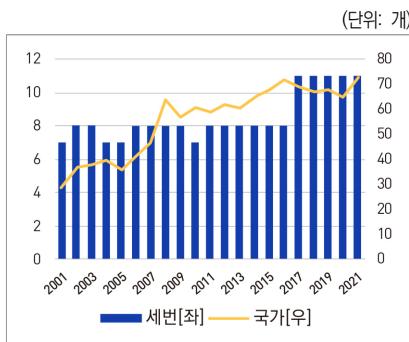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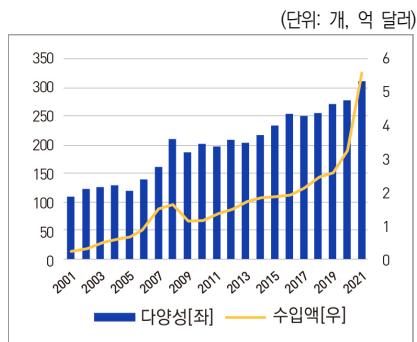


그림 3-3. 와인 수입의 상품 다양성 및 수입액



주: 와인의 다양성은 HS_2204 하부의 8개(-2016년) 및 11개(2017년-) 세번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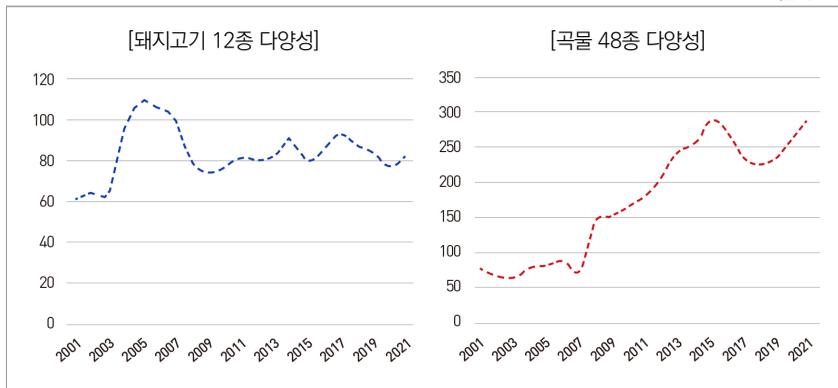
개방적 통상정책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지난 20년간 한국의 수입 전반에서 상품 다양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 수입의 상품 다양성이 2002년 10만 712개에서 2021년 16만 8,922개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이에 비해 와인 수입의 다양성은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품목

- 12) 같은 맥락에서 1개의 와인 품목(HS 10단위)당 수입이 이루어지는 상대국의 수는 2002년 15.3개국에서 2021년 28.5개국으로 증가했다.
- 13) HS코드 세분화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5종의 품목으로 구분하여 다양성 수를 계산하면 2002년 90개, 2021년 201개로 연평균 4.3% 증가, 마찬가지로 8종의 품목으로 구분한 경우 2021년 287개로 연평균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몇 종의 품목으로 집계하는가에 따라 다양성의 수 자체는 차이가 있었으나 증가 추세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 범위를 좁혀서 비교하면, 농축수산물의 상품 다양성은 같은 기간 7,659개에서 1만 9,069개로, 주류(와인 포함)의 다양성은 310개에서 861개로 늘어났다.¹⁴⁾ 그러나 모든 품목의 수입에서 다양성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의 경우 2006년 106개에서 2021년 82개로 오히려 감소했고, 곡물의 경우 2002년 64개에서 2015년 287개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8년 226개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3-4. 돼지고기 및 곡물 수입의 상품 다양성

(단위: 개)



주: 1) 돼지고기(12종)는 HS_0204 하부의 8종 외에도 식용설육(HS_0206) 4종을 포함.
 2) 곡물은 HS_10 하부의 32종(-2011년) 및 48종(2012년-)에 대한 수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품질 다양성

가. 품목별 수입단가

한국의 와인(HS_2204) 수입 규모는 2002년 수입액 2,943만 달러, 수입량 1만 1,522톤에서 2021년 수입액 5억 6,000만 달러, 수입량 7만 6,575톤을

14) 한국의 전체 수입, 농축수산물 수입, 주류 수입과 관련된 다양성 변화는 [부록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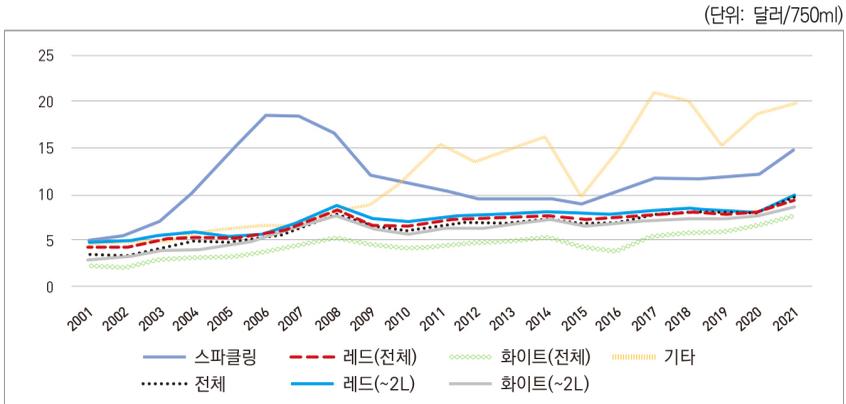
기록하여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살펴보면 수입액 기준 16.8%, 수입량 기준 10.5%에 달한다.¹⁵⁾ 통관자료의 수입액 및 수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수입 와인의 1병(750ml)당 수입단가(=수입액÷수입량)를 살펴보면 2002년 3.4달러에서 2021년 9.7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입단가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 4.9달러, 2008년 6.3달러, 2012년 7.0달러, 2018년 8.1달러 등 지난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수입단가가 크게 변동한 시기는 2007년으로 전년대비 수입액이 69.7%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43.3% 증가하면서 비교적 고가 와인의 수입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수입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에 불과했으나 수입량은 오히려 9.5% 감소해 마찬가지로 고가 와인의 수입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21년 수입액은 69.6% 증가하고 수입량은 41.5% 증가하면서 2007년과 유사한 형태로 고가 와인에 대한 수입 확대 양상이 나타났다.

HS코드 분류에 기초하여 5가지 와인 품목별 수입단가를 살펴보면, 먼저 수입 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레드와인이 2002년 4.2달러, 2021년 9.5달러, 2002~21년 누계 기준으로 7.4달러이며, 이는 와인 전체의 수입단가와 거의 유사한 수치이다. 화이트와인의 수입단가는 2002년 2.0달러에서 2021년 7.6달러로 상승했으며, 2002~21년 누계 5.0달러로 레드와인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다만 이는 '2~10리터' 및 '기타'로 분류되는 화이트와인의 낮은 단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주로 수입 및 소비되는 '2리터 이하 용기에 담은 화이트와인(HS_2204.21.2000)'의 수입단가는 2002~21년 누계 6.9달러(2021년 8.7달러)로 레드와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스파클링와인의 수입단가는 2000년대 중반부터 10달러 이상에 달하는 등 비교적 고가의 품목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7년 18.5달러, 2015년 9.1달러, 2021년 14.9달러 등 부침을 보였다. 이외에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와인'의 경우 와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크지 않은 만큼 일관성 있는 수입단가 추이를 보이지는

15) 한국 와인 수입의 상세한 현황은 [부록 3] 참고.

않았으나, 2010년대 들어 수입단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전년대비 수입액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한국 와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로 예년 대비 크게 높았는데, 수입단가 역시 19.8달러로 크게 높아졌다.

그림 3-5. 품목별 와인 수입단가 추이



주: 레드(~2L) 및 화이트(~2L)는 일반적인 소매 품목인 HS_2204.21(2L 이하 용기에 담은 것) 하부에 속하는 레드 및 화이트 와인에 대한 수입단가를 계산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상대국별 수입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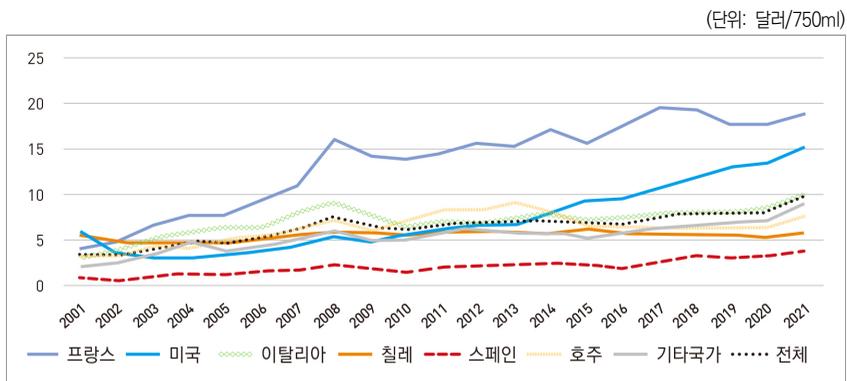
한국 와인 수입의 주요 상대국(원산지)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칠레, 스페인, 호주 6개국이다. 2002~21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프랑스산 와인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칠레산(약 23%)과 스페인산(약 2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¹⁶⁾

이와 같은 와인 수입액 비중과 수입량 비중의 원산지별 차이는 수입단가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2010년대 들어 상대국별 수입단가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산 와인의 경우 2002

16) 한국 와인 수입의 상대국별 상세 현황은 [부록 3] 참고.

년 수입단가(750ml 당)는 5.0달러였으나 2008년 16.1달러 및 2021년 18.8달러로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 와인 전체의 수입단가가 3.4달러, 7.7달러, 9.7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프랑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와인이 주로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칠레산 와인의 수입단가는 2002년 5.0달러로 프랑스산과 동일했으나, 2002~21년 누계 5.7달러 및 2021년 5.9달러 등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아 비교적 중·저가의 와인이 주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산과 함께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스페인산 와인의 수입단가는 2002년 0.8달러에서 2021년 3.9달러로 증가하여 다른 상대국들에 비해 저렴한 와인이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산 와인의 수입단가는 2002년 3.8달러로 높지 않았으나, 2010년대 들어 크게 상승하였고 2021년 수입단가는 15.3달러에 달해, 과거에 비해 고가의 와인을 중심으로 수입 품목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상대국별 와인 수입단가 추이



주: 1) 상대국 순서는 2021년 수입액 기준.

2) 기타국가는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독일, 남아공 5개국을 대부분 차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다른 주류와의 수입단가 비교

한국의 와인 수입단가 변화의 특징은 같은 품목군에 속하는 다른 주류의 단가 변화와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¹⁷⁾ 지난 20년간 와인의 수입단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여타 다른 주류의 수입단가는 대체로 정체 혹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02~21년 기간 와인 1병(750ml)당 수입단가는 7.2달러인 반면, 와인을 제외한 다른 주류의 수입단가는 2.8달러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른 주류의 수입단가는 2002년 6.6달러, 2008년 5.4달러, 2015년 2.5달러 2021년 2.1달러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주류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스키(HS_2208.30)의 수입단가는 같은 기간 12.1달러, 14.8달러, 12.2달러, 14.9달러로 높은 편이고, 맥주(HS_2203)의 수입단가는 0.9달러, 1.2달러, 1.1달러, 1.2달러로 낮았는데, 두 품목 모두 단가의 변동 자체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제외한 다른 주류 전체의 수입단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게 감소한 이유는 단가가 낮은 맥주의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위스키의 수입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3-2. 와인 수입 금액, 물량, 단가

(단위: 백만 달러, 톤, 달러/750ml)

연도	금액	물량	단가
'02~'11(평균)	96	21,677	5.9
2012	147	28,084	7.0
2013	172	32,557	7.0
2014	182	33,100	7.3
2015	190	36,815	6.9
2016	191	37,384	6.8
2017	210	36,144	7.7
2018	244	40,292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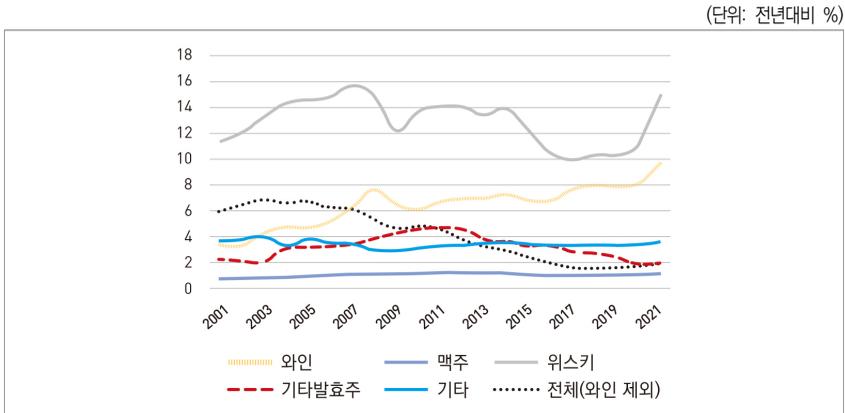
17) 한국의 와인 수입과 다른 주류 수입의 비교 현황은 [부록 3] 참고.

표 3-2. 계속

연도	금액	물량	단가
2019	259	43,495	7.9
2020	330	54,127	8.1
2021	560	76,575	9.7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7. 주류별 수입단가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소비자 가격과 품질 다양성

앞서 통관자료를 이용해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방법은 HS코드와 수입상대국이라는 제한적인 구분 방법으로 인해 다양성의 정도를 충분히 측정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와인과 같은 기호품은 물리적·기능적 특성 외에도 심미적인 요소 등 여러 가지 특성이 다양성을 구분하는 데 중요하다. 더욱이 와인의 경우 실제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종류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통관자료를 이용한 다양성 분석의 한계를 노정한다.¹⁸⁾

18) 한국의 대표적인 와인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와인21닷컴' 웹사이트에서는 총 2만 7,248종의 와인을 검색할 수 있다. 와인21닷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1. 19).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준에서 구축된 자료나 표본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 등을 통해 수입의 다양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통관자료만큼 체계적이지 않고, 전수적인 데이터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다양성에 훨씬 근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문헌조사·현장조사·인터뷰를 통해 집계하고 조사한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산 와인에 대한 가격 변화, 유통 실태, 소비 현황 등을 분석한다. 한국소비자원(2021)은 와인에 대해 주요 수입 상대국(원산지)별 표본제품그룹의 소비자 가격을 분석하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 연도별로 소비자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산 와인의 가격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가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품질 다양성을 단순히 통관자료상의 수입단가에 의존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는 각 시점별로 9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와인의 브랜드명과 제품명, 원산지와 제조·수입·판매원, 그리고 용량과 가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시점은 연도, 월, 일까지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품당 월별로 2회(일) 조사된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실제 분석은 연도별 혹은 월별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매장은 백화점 3개(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대형마트 3개(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편의점 3개이다. 와인 종류의 구분은 '아이템명' 항목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브랜드명과 제품명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용량, 빈티지(포도 수확 연도), 영문명 등 부수적인 정보가 기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수적인 정보들의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관성 있게 기입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와인의 종류(다양성)를 ‘브랜드명+제품명’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제공된 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는 와인의 가격에 대해 매우 세부적이며 소비자들의 실제 체감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광범위한 정보를 직접적인 표본조사를 통해 데이터로 구축한 만큼 단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조사 시점별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와인의 다양성을 구분하는 데 브랜드명이나 품목명만을 기초로 한다는 점, 국문 표기상 오류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직접 구매 또는 주류전문판매점이나 일반음식점 및 주점 등에서의 판매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²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품목의 판매량이나 매출액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매장에 진열된 시점의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입액 및 수입량을 기초로 단가를 계산하는 통관자료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²¹⁾

이하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와인에 대한 소비자 가격의 연도별 및 원산지별 분포를 살펴본다. 분석 기간은 최근 자료 중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 내 전체 월에 대해 자료가 수집된 2016~20년으로 국한하였다. 해당 기간 수집된 자료의 전체 건수는 2만 6,414건이며, 이를 앞서 정의한 와인의 종류(브랜드명+제품명)별로 정리하면 총 260종으로 구분된다. 또한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연도에 집계된 경우 이를 다른 종류로 분류하면 총

19) 아이템명 항목에 빈터지, 용량 등의 정보가 기입된 경우 이를 배제하여 브랜드명+제품명으로 와인의 종류(다양성)가 정의되도록 하였고, 동일한 제품의 이름이 서로 달리 표기된 경우 이들을 일치시켰으며, 추가적으로 원산지 정보 등이 미기입된 경우 제조·수입·판매원에 기재된 국가명을 활용 혹은 해당 와인 브랜드의 원산지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여 기입하였다.

20) 다만 한국소비자원(2021)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주요 와인 구매 채널은 대형마트가 72.8%, 백화점이 10.8%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백화점 및 마트를 중심으로 구축된 가격 자료는 충분한 대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2021), p. 32.

21) 일례로 [표 3-2]에 따르면 2016~20년 수입산 와인의 다양성(종류)이 줄어들고, 수입단가(평균가격)는 하락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해당 자료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매출액 혹은 수입액 등 수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979종으로 구분된다. 와인의 원산지는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칠레,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총 9개국이다. 와인의 소비자가격은 1병 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와인 종류마다 1병의 용량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량인 750ml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단위가격을 계산하였다.²²⁾

2) 연도별 와인 소비자가격의 분포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연도별 와인의 종류를 살펴보면 2016~20년 연간 200여 개의 다양성이 식별된다. 이들에 대한 연도별 단위가격(750ml 당 원)²³⁾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2016년 평균 6만 6,333원에서 2019년 평균 5만 9,658원으로 점차 하락하고 다시 2020년 평균 4만 3,988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통관자료를 이용한 수입단가가 상승했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통관자료에서 산출한 수입단가는 와인 수입량을 이용한 가중 평균인 데 반해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수입와인의 소매가격을 단순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와인의 소비자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해 한국소비자원(2021)은 대형유통사들의 가격 경쟁, 그리고 앱, 동호회, 온라인 구매(스마트오더), 해외직접구매 등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와 가격 정보 접근성 향상 등 국내 유통환경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²⁴⁾ 또한 2020년의 평균단가 급락에는 당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와인의 수입 및 소비 전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자료는 통관자료와 달리 우리나라 와인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것

22) 총 2만 6,414개의 관측치 중 용량이 748~752ml인 품목이 2만 4,943개로 대부분이다. 용량이 크게 다른 품목으로는 '이니스킬린 골드 비달(375ml)', '칼로로시 레드(1,500ml 및 3,000ml)' 등이 있다.

23) 하나의 다양성(브랜드명+제품명)에 대해 같은 연도 내에서 월별, 일별로 중복하여 여러 번 조사된 경우 이들을 산술평균하여 연도별 하나의 단위가격으로 산출하였다.

24) 한국소비자원(2021), pp. 16~18.

이 아니며 가중평균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와인 가격의 기초통계량을 이용해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가격)를 계산하면 모든 연도에 걸쳐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와인 종류에 대한 소비자가격의 범위(variation)가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품질이 가격에 반영되었다면 변동계수가 클수록 해당 연도에 와인의 품질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와인 소비자가격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5퍼센타일 및 중간값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7,000~8,000원 정도 하락한 반면, 75퍼센타일의 가격 하락은 약 2만 2,000원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는 최근 들어 기존에 수입하던 고가 와인의 소비자가격이 대폭 하락했거나 또는 고가의 와인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와인으로서의 수입 대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2021)은 데이터 수집률이 가장 높은 21개 제품의 1년간 평균 소비자가격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 결과, 2020년 기준 20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15개 품목의 가격이 2018년 대비 하락했다.²⁶⁾

표 3-3. 연도별 와인 종류의 소비자가격 기초통계량

연도	종류 (다양성)	평균 가격	표준 편차	변동 계수	최솟값	25%ile	중간값	75%ile	최댓값
2016	222	66,333	74,181	1.12	5,217	27,579	43,284	72,737	479,245
2017	218	64,256	75,487	1.17	5,414	27,333	44,800	68,000	500,000
2018	184	61,393	71,826	1.17	5,463	24,622	41,666	63,472	450,700
2019	180	59,658	84,542	1.42	5,404	21,611	37,162	56,869	700,000
2020	175	43,988	46,806	1.06	5,359	19,095	35,500	50,000	459,074
전체	979	59,720	72,322	1.21	5,217	24,125	40,000	64,000	7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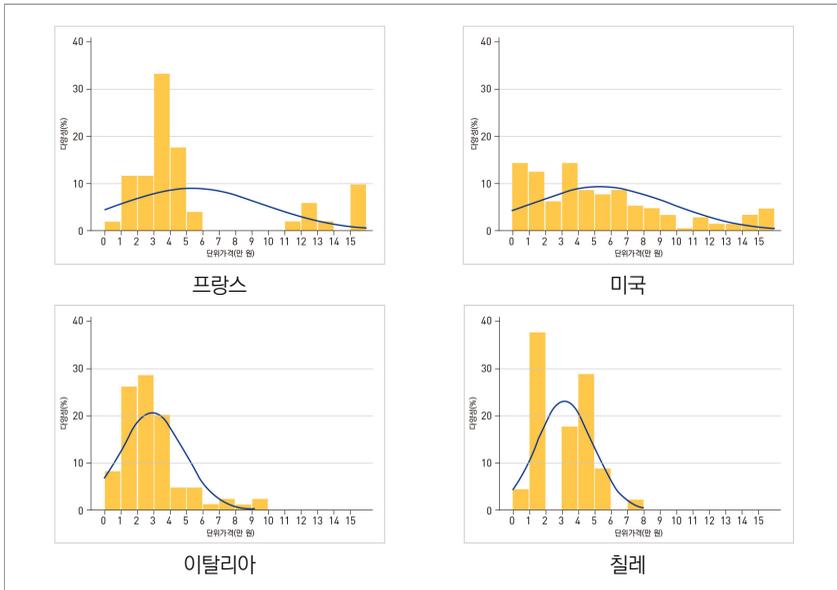
주: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
 자료: 한국소비자원,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5) 이를 백분율 변화로 계산하면 25퍼센타일 30.8%, 중간값 18.0%, 75퍼센타일 31.3% 하락으로 중간값의 하락 폭이 가장 낮은 편이다.
 26) 한국소비자원(2021), pp. 14~15.

3) 원산지별 와인의 소비자가격 분포

[그림 3-8]은 원산지별 와인 종류의 가격 분포를 보여준다. 프랑스산 와인은 가격이 3~4만 원대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1~2만 원대와 10만 원 이상의 고가 와인도 다수 존재해 폭 넓은 분포를 보인다. 다만 6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의 품목은 없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미국산의 경우 거의 모든 가격대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산 와인의 경우 3만 원대 이하 품목에 집중된 분포를 보이며 10만 원대를 넘는 고가 품목은 없어 대체로 저가 품목 위주임을 알 수 있다. 칠레산 와인의 경우 1만 원대와 3만~4만 원대 등 중·저가 품목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2만 원대 품목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3-8. 원산지별 와인 종류의 소비자가격 분포



주: 1) 실선은 정규분포곡선.
 2) 15만 원 초과 품목(프랑스 5개(40만~48만 원), 미국 10개(15만~19만 원))은 '15-' 구간에 표시.
 3) 와인의 브랜드명+품목명이 동일하더라도 하더라도 연도가 다른 품목은 각기 다른 다양성으로 집계함.
 자료: 한국소비자원,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016~20년 상대국별로 와인 종류²⁷⁾의 연도별 단위가격²⁸⁾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프랑스산 와인의 평균가격이 8만 3,753원으로 아이스 와인과 같은 특수한 종류의 와인이 수입되는 캐나다산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미국산이 5만 5,175원으로 높았다. 반면 이탈리아산 와인의 평균가격은 2만 9,618원, 칠레산은 3만 2,527원으로 낮은 편이고 스페인산 와인(5만 6,311원)과 호주산(5만 189원)의 경우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관자료의 원산지별 수입단가와 양상이 다른데, 소비자가격의 원산지별 수입단가는 단순 평균가격이며 국가별 표본 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에서는 스페인산 와인은 표본이 매우 적은 반면 호주산의 표본은 상당히 많다.

원산지별 와인 종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프랑스산과 칠레산의 중간값이 3만 7,000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평균가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프랑스산과 칠레산의 75퍼센타일은 역시 유사한 반면, 25퍼센타일은 프랑스산 3만 426원, 칠레산 1만 4,532원이고 최댓값의 경우 프랑스산은 47만 9,245원, 칠레산은 7만 4,286원으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프랑스산의 경우 칠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의 와인 종류는 많지 않은 반면 고가의 와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원산지별 와인 소비자가격의 변동계수를 계산해보면 프랑스가 1.50으로 가장 높고 호주(1.19)와 미국(0.83)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이탈리아(0.65), 칠레

27) 앞서 정의한 와인의 종류(브랜드명+제품명)에 더해 연도별로 다른 경우도 각기 다른 종류로 계산하였다. 이는 단위가격 계산상 연도별 통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종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각기 다른 연도에 직면하는 가격들을 구분하여 소비자가격의 분포를 보다 엄밀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도별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2016~20년 수입된 와인의 종류는 260종으로 집계된다. 여기서 연도는 소비자가격 자료를 조사한 해를 의미하며, 와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가 수확된 해를 기준으로 '몇 년산 와인'을 표시하는 빈티지(vintage)와는 다르다.

28) 하나의 와인 종류에 대해 같은 연도 내에서 월별, 일별로 조사된 값들을 산술평균하여 연도별로 하나의 단위가격을 산출하였다. 일례로 칠레산 '1865까르미네르소비농블랑'의 경우 2019년 8개, 2020년 2개의 가격이 조사되었는데, 이들을 연도별로 평균하여 2019년(3만 8,450원) 및 2020년(3만 7,400원) 2개의 다양성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0.52) 등 여타 국가의 수치는 낮은 편이다. 이는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와인의 경우 프랑스산과 호주산, 그리고 미국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가격대의 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⁹⁾

표 3-4. 원산지별 와인 종류의 소비자가격 기초통계량

연도	종류 (다양성)	평균 가격	표준 편차	변동 계수	최솟값	25%ile	중간값	75%ile	최댓값
프랑스	50	83,753	125,649	1.50	12,917	30,426	37,933	48,585	479,245
미국	208	55,175	45,862	0.83	5,217	18,855	43,009	76,122	268,875
이탈리아	83	29,618	19,257	0.65	6,838	18,500	25,000	34,000	98,125
칠레	44	32,527	16,806	0.52	9,947	14,532	37,247	45,698	74,286
스페인	24	56,311	36,784	0.65	20,000	31,400	36,069	62,255	127,000
호주	293	50,189	59,633	1.19	7,900	17,739	38,173	60,000	700,000
뉴질랜드	209	51,775	26,875	0.52	20,668	36,304	42,539	59,333	189,565
독일	15	13,617	1,326	0.10	11,547	12,430	13,900	14,456	15,597
캐나다	53	223,215	139,672	0.63	42,314	87,933	200,000	350,909	500,000
전체	979	59,720	72,322	1.21	5,217	24,125	40,000	64,000	700,000

주: 1)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

2) 와인의 브랜드명+품목명이 동일하더라도 하더라도 연도가 다른 품목들은 각기 다른 종류(다양성)로 집계함.

자료: 한국소비자원,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소결

본 장에서는 수입통관 자료와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수입 와인의 상품 다양성 및 품질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통관자료상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HS 10단위로 정의된 한국 수입 와인의 상품 다양성은 2002년 122개에서 2021년 313개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한국은 한·미 FTA, 한·EU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와인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29) 다만 이는 상당 부분 수십만 원대에 달하는 초고가 품목의 유무 여부에 기인할 수 있다.

와인의 품질 다양성은 통관자료의 수입액과 수입량을 이용해 1병(750ml)당 기준으로 계산한 수입단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와인 수입액과 수입량은 2002~21년에 걸쳐 크게 증가했는데, 수량에 비해 금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단가는 2002년 3.4달러에서 2021년 9.7달러로 상승했다. 수입단가를 원산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산 와인의 수입단가는 2002년 5.0달러에서 2021년 18.8달러로 크게 상승한 반면, 칠레산 와인은 2002년 5.0달러에서 2021년 5.9달러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미국산 와인의 수입단가는 2010년대 들어 크게 상승했으며, 스페인산 와인의 수입단가도 점차 상승했으나 전 기간에 걸쳐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등이 발효된 2010년대에 원산지별 수입단가의 차이가 확대되었다. 이 기간 와인의 수입단가 변동 추세가 특별하다는 것은 다른 주류와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위스키의 수입단가는 10~15달러에서 연도별로 등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맥주는 기껏해야 1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여 수입단가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통관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이어 본 장에서는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6~20년 수입 와인의 종류별 단위가격을 통해 품질다양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소개하고 연도별 단위가격 추세와 원산지별 소비자가격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기간 동안 와인의 단위가격(평균가격 또는 중간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데이터 수집률이 높은 품목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과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 가격의 변동계수는 모든 기간에 걸쳐 100%가 넘어 소비자가격의 범위 즉, 품질 다양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와인 종류의 가격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원산지 국가별로 차이가 컸으며, 미국산과 프랑스산 와인이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넓게 분포된 반면 칠레산과 이탈리아산은 중저가 와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본 장은 FTA 등 무역 자유화에 따른 품질 다양성의 증가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품질 다양성의 확보 및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무역 자유화에 따른 관세 인하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품질하향 대응(quality shading)을 취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한다.

먼저 Chung, Chung, and Kim(2022)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품질의 정의와 가격 상승 또는 소득 감소에 대한 품질하향 대응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품질(quality)의 차이는 동일한 양적 단위당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즉 동일한 브랜드라 할지라도 동일 양적 단위당(예를 들어 쌀 10kg, 750ml 와인 1병, 담배 1갑 등)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이는 품질 차이가 없어도 원산지의 차이 등으로 제품이 다르게 구분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제학 문헌에서의 상품 다양성(variety)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³⁰⁾ 예를 들어 원산지 국가가 달라도 단위당(750ml) 가격이 같으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품질에는 차이는 없지만 프랑스 와인과 뉴질랜드 와인은 원산지가 다르므로 상품 다양성 차원에서는 서로 차별화된 상품으로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대상이 되는 와인이나 담배도 다양한 가격대의 여러 브랜드를 포함하고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동일 용량(750ml)의 와인 한 병에도 수백 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품질의 차이가 존재

30) Krugman(1979).

한다.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해 계산해보면 2020년 8월 기준 프랑스 수입 와인 750ml는 최상급과 최하급 간에 약 3,000배의 가격 차이가 나고 최상위 분위의 평균가격이 다음 분위의 평균가격에 비해 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한 동일 용량의 와인 내에도 폭 넓은 품질 다양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무역 자유화 또는 정책 입안으로 인해 가격이 변화할 때 품질 다양성이 소비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소득 수준별 품질하향 대응의 차이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와인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면 와인 소비량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고품질 와인으로 소비가 전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담배의 경우도 2022년 현재 통상 4,500원으로 알려진 가격은 2015년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이후 형성된 일종의 대표상품(더윈, 예쎬 클래식 등)의 가격이며, 실제 담배가격은 4,000원(디스, 라일락 등)부터 6,000원(예쎬 골든리프)과 7,000원(보험시가마스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³¹⁾ 담배 대표상품의 가격이 통상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승한 2015년의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는 낮은 품질재로 전환하는 품질하향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 가능성이 더욱 컸을 수 있다.

또한 주식으로서 쌀의 경우도 상당한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가게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10kg 쌀이라도 가격은 2만 7,900원에서 4만 8,900원 범위에서 상당한 품질 차이를 보인다.³²⁾ 쌀의 동일한 양적 단위당 가격 차이인 품질 차이는 맛이나 도정도(또는 분도) 등 궁극적인 건강지표(칼로리 등)와는 무관한 요소에서 기인하므로 쌀과 같은 주식품의 경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또는 칼로리 소비량)는 유지하면서 지출액을 줄

31) KT&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10).

32) 이마트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1. 10).

이는 질적 대응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과 이를 가능케 하는 정책(예를 들어 FTA 등 무역 자유화 정책)을 통한 품질 다양성의 확보가 최근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잠재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의 대응에 중요한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정책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제5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한다.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가. 방법론

관세의 인하나 물품세의 부과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통상적으로 재화의 수요탄력성을 추정하여, 그 값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담뱃세율의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의 변화를 가격탄력성으로 측정하고, 수입 와인의 관세 인하에 따른 와인 소비의 변화도 유사하게 수요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결과적인 소비자 후생의 변화와 연계하여 논의한다. 가계동향조사 소비품목 분류 중 하나는 ‘주류와 담배’로, 와인을 포함하는 주류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호품은 담배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주요 선행연구인 Chung, Chung, and Kim(2022)의 와인 자료 기간을 늘려 이전 분석의 강건도를 확인하고, 주류로서의 와인과 유사하게 중독성 이슈가 있는 담배를 이용해 소득 수준과 관련된 질적 가격탄력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추가한다. 다만 소득 수준별 실증분석은 담배로 국한한다. 이는 소비자원 가격자료의 기간 제한으로 인해 월간 자료를 분석단위로 하는 와인 수요 분석에서 연간자료인 소득변수의 경우 그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되는 반면, 모든 변수들에 대해 동일한 시계열자료 기간이 확보되는 담배의 경우 소득변수도 적절한 변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인과 담배 두 재화 모두 중독성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총량 시계열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횡단면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는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추정식 [식 4-1]과 [식 4-2]는 Deaton(1990), Gibson and Kim(2019a), 그리고 Chung, Chung, and Kim(2022) 등에서 사용된 방법론의 기본 식으로, 가격 및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대응과 질적 대응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이어진 추정식 [식 4-3]~[식 4-6]은 [식 4-1]과 [식 4-2]의 기본 분석을 소득 수준별 분석에 적용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식 4-1]은 재화지출비중 w_{Gt} 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 AIDS (Almost Ideal Demand System) 방법론의 기본식이다. [식 4-5]는 [식 4-1]의 소득변수에 관한 선형모형을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 변화를 포함하는 식으로 변형시킨 비선형(quadratic)모형이다. [식 4-1]의 설명변수로 $\ln x_t$ 는 t기의 로그 1인당 소득, $\ln P_{Gt}$ 는 t기의 로그 재화가격지수, 그리고 기타 통제변수벡터 z_t 는 재화 소비의 추세를 나타내는 t 와 t^2 , 와인이나 담배와 같이 소비 중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t-1$ 기 재화지출비중 등을 포함한다. u_{1t} 는 확률오차 항을 나타낸다. 추세에 제곱 항을 넣은 것은 재화 소비의 추이에 대해 비선형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분석자료는 가계동향조사 등 미시자료와 대표적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시계열 총량자료로 크게 분류된다. 소비자의 질적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역별 가격 차이와 이에 대응한 가계단위에 관한 분석으로 주로 이루어져왔다.³³⁾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 등 장기적인 성격의 가격 차이를 반영한 지역가격변수를 활용하여 추정된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가격탄력성은 시계열 자료인 경우 장기 탄력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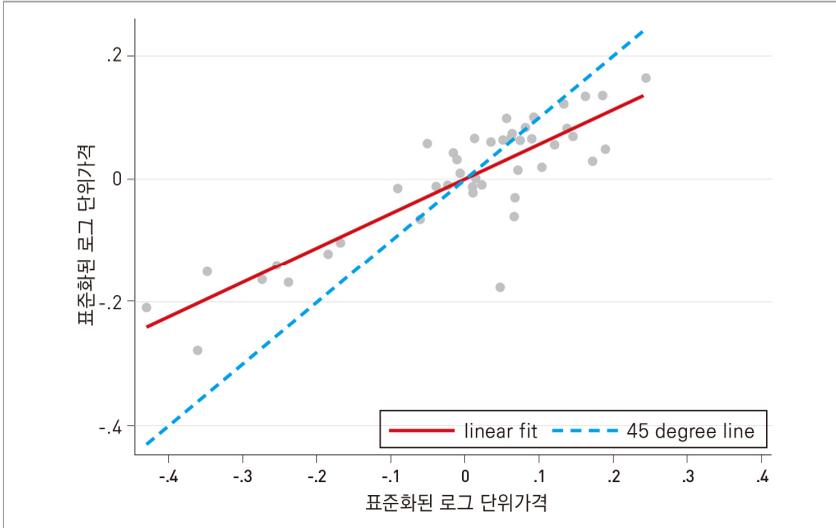
$$w_{Gt} = \alpha_1 + \beta_1 \ln x_t + \theta \ln P_{Gt} + \gamma_1 z_t + u_{1t} \quad [\text{식 4-1}]$$

33) McKelvey(2011), Gibson and Kim(2013).

통상적인 실증모형에서 재화지출비중 w_{Gt} 의 분자인 재화지출액은 재화를 단일재로 간주하여 하나의 스칼라 가격과 스칼라 소비량(Q_{Gt})의 곱으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추정된 계수 θ 와 평균 재화지출비중($\overline{w_G}$)을 활용하여 재화의 가격탄력성 $\varepsilon_P (\equiv \partial \ln Q_{Gt} / \partial \ln P_{Gt} = \theta / \overline{w_G} - 1)$ 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화가 다양한 품질의 집합재임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단일재를 가정한 교과서적인 가격탄력성 공식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집합 또는 그룹재(G재)로서 재화의 지출액(x_{Gt})은 가격벡터(p_{Gt})와 다양한 개별 품질재들의 소비벡터(q_{Gt})의 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화지출액(x_{Gt})은 여러 품질을 포괄하는 스칼라 변수로서의 재화소비량(Q_{Gt})과 재화지출액을 재화소비량으로 나눈 값인 단위가격(unit value, v_{Gt})이라는 두 가지 스칼라 변수의 곱($x_{Gt} = v_{Gt} Q_{Gt}$)으로 다르게 표현된다. 두 가지 스칼라 변수 중 Q_{Gt} 는 품질과 관계없이 몇 병의 와인이나 몇 갑의 담배를 소비하는가라는 양적인 소비 선택을 나타내며, 단위가격 v_{Gt} 는 가격과 더불어 여러 품질의 다양한 구성을 나타내는 질적인 선택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두 가지 품질의 와인이 존재하고 두 가지 품질재 모두 10%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할 때, 소비자가 저품질 와인의 구성비를 높이는 질적 대응(quality shading)을 한다면 소비자의 단위가격은 10%보다 낮게 증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격 하락 시에도 단위가격의 하락은 그 정도가 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와인의 단위가격과 가격 간의 관계를 표현한 [그림 4-1]은 세로축의 단위가격 변동성이 가로축의 가격 변동성보다 작아 위에서 설명한 질적 대응을 직관적으로 잘 나타낸다. 이러한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인 대응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면 무역 자유화로 인한 수입가격의 하락과 같은 외생적인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후생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 변화와 소득이나 다른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질적인 선택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단위가격을 종속변수로 하는 [식 4-2]를 추정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한다.³⁴⁾

$$\ln v_{Gt} = \alpha_2 + \beta_2 \ln x_t + \varphi \ln P_{Gt} + \gamma_2 z_t + u_{2t} \quad [\text{식 4-2}]$$

그림 4-1.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하향 대응(와인)



자료: 저자 작성.

[식 4-2]는 [식 4-1]과 동일한 설명변수를 사용하며 가격탄력성 추정 관련 정보인 가격변수의 계수(φ)를 제외하고는 하첨자 1과 2를 사용해 동일한 설명변수의 [식 4-1]과 [식 4-2]의 계수를 구분한다. 앞에서 기술한 통상적인(양적) 가격탄력성 공식인 $\varepsilon_P = (\theta/\overline{w_G} - 1)$ 는 지출 비중을 $\ln P_{Gt}$ 에 대해 편미분하여 구해지나, 이는 재화를 단일재로 간주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재화지출액이 $v_{Gt} Q_{Gt}$ 로 표현되는 집합재인 경우, 가격 변화에 대한 질적인 대응을 제거한 진정한 양적인 가격탄력성 공식은 $\varepsilon_P = (\theta/\overline{w_G} - \varphi)$ 로 수정된다. 다르게 표현

34) 재화의 지출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는 AIDS 방법론이 수요 분석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가계 조사자료에서는 재화별 지출 정보가 주된 수집 대상인데, 비용 문제로 인해 조사 재화의 수가 제한된 집합재로서의 지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와인 수요 분석을 위한 한국의 가계조사는 와인을 포함한 광의의 재화 수준인 '주류' 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선행연구 중 스칼라 소비량이나 로그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본 연구의 양적 가격탄력성에 해당한다. 외생적인 가격 변화나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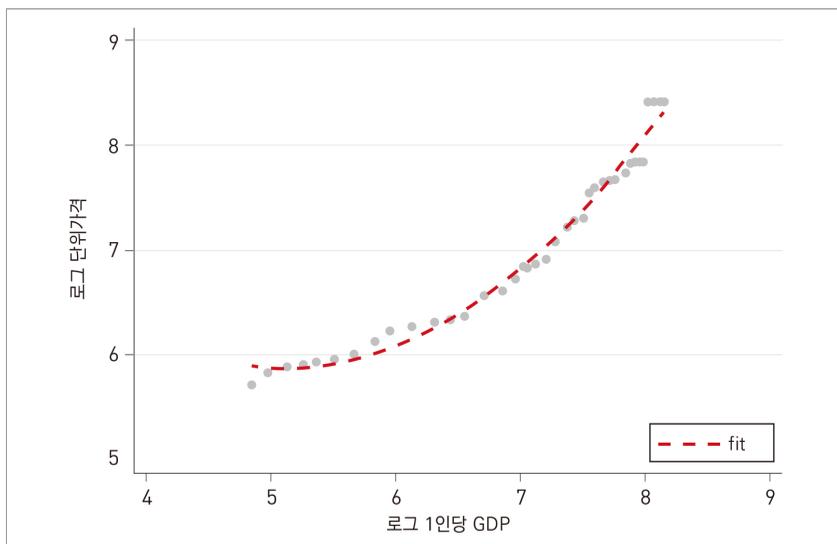
하면 통상적인 가격탄력성 $\varepsilon_P = (\theta/\overline{w_G} - 1)$ 은 $(\theta/\overline{w_G} - \varphi)$ 과 $(\varphi - 1)$ 의 합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합한 값 중 전자는 질적 대응을 제외한 진정한 양적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고, 후자는 질적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만일 집합재인 재화의 질적 구성에 변화가 없어 단위가격이 가격에 대해 일대일 (1:1)로 변화한다면(즉 $\varphi = 1$) 질적 가격탄력성은 0이 되지만, 실제 φ 의 값은 실증분석의 대상이 된다. 단위가격의 변동성이 가격의 변동성보다 작은 [그림 4-1]은 와인의 단위가격이 가격에 비해 적게 변화하는(즉 $\varphi < 1$)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 등의 외생적인 이유로 가격이 상승하면 낮은 품질의 담배 소비로 대체하는 품질하향이 발생하고, φ 는 1보다 작은 값이 될 것이며, 질적 가격탄력성인 $(\varphi - 1)$ 은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그림 4-1]에서 단위가격의 가격에 대한 기울기(ψ)는 소득 등 다른 통제변수를 포함한 추정식 [식 4-2]의 추정계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이 계수추정치 값은 품질을 반영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가격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품질조정가격 방법론의 핵심 가정에 대한 검증에도 사용된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본 장의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한편 [그림 4-1]의 단위가격 기울기는 가격 상승에 대한 품질하향 대응이 클수록 작아진다. 한편 이러한 가격에 대한 질적 대응 수준은 소득 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분석 결과도 2절에서 제시한다. 가격탄력성과 마찬가지로 질적 대응을 제외한(양적)수요의 소득탄력성은 통상적인 공식인 $\varepsilon_x (= \beta_1/\overline{w_G} + 1)$ 이 아니라 $\varepsilon_x (= \beta_1/\overline{w_G} + 1 - \beta_2)$ 로 수정된다. 소득 증가에 대한 단위가격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β_2 값은 소비자가 소득 증가에 품질상향으로 대응하는 경우 양(+)의 부호를 가진다. [그림 4-2]는 담배의 경우 가로축의 소득이 증가할 때 세로축의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상당한 양의 기울기는 다른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도 양의 β_2 값과 이를 반영한 질적 소득탄력성이 상당히 클 것임을 시사한다. 가격 및 소득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에 관한 추정 과정을 요약하면, 단일재를 가정하는 기존 연구들은 [식 4-1]만을 사용하여 통상적인 가격탄

력성 공식인 $\varepsilon_P(= \theta/\overline{w_G} - 1)$ 를 사용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고려한 가격탄력성으로 $\varepsilon_P(= \theta/\overline{w_G} - \varphi)$ 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소득탄력성 공식도 $\varepsilon_x(= \beta_1/\overline{w_G} + 1)$ 대신 $\varepsilon_x(= \beta_1/\overline{w_G} + 1 - \beta_2)$ 를 사용한다.

$$w_{Gt} = \alpha_1 + \beta_1 \ln x_t + \theta \ln P_{Gt} + \gamma_1 z_t + \delta_1 \ln P_{Gt} \times \ln x_t + u_{1t} \quad [\text{식 4-3}]$$

$$\ln v_{Gt} = \alpha_2 + \beta_2 \ln x_t + \varphi \ln P_{Gt} + \gamma_2 z_t + \delta_2 \ln P_{Gt} \times \ln x_t + u_{2t} \quad [\text{식 4-4}]$$

그림 4-2.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담배)



자료: 저자 작성.

소득 수준별 질적 가격탄력성을 분석하는 [식 4-3]과 [식 4-4]에서도 동일한 설명변수를 사용하며, 가격탄력성 추정 관련 정보인 가격변수의 계수(φ)를 제외하고는 하첨자 1과 2를 사용해 동일한 설명변수의 추정된 계수를 구분한다. 위와 같이 소득변수와 가격변수의 교호 항이 추가되는 경우 가격이나 소득 변화에 대해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고려한 가격탄력성은 $\varepsilon_P(= \theta/\overline{w_t} - \varphi)$ 에서

$\varepsilon_P (= [(\theta + \delta_1 \ln x_t) / \overline{w_G} - (\varphi + \delta_2 \ln x_t)])$ 로 수정된다. 나아가 소득의 질적 탄력성을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는 추정식은 아래의 [식 4-5]와 [식 4-6]으로 표현된다.

$$w_{Gt} = \alpha_1 + \beta_1 \ln x_t + \theta \ln P_{Gt} + \gamma_1 z_t + \lambda_1 (\ln x_t)^2 + u_{1t} \quad \text{[식 4-5]}$$

$$\ln v_{Gt} = \alpha_2 + \beta_2 \ln x_t + \varphi \ln P_{Gt} + \gamma_2 z_t + \lambda_2 (\ln x_t)^2 + u_{2t} \quad \text{[식 4-6]}$$

이 경우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을 고려한 소득탄력성은 $\varepsilon_x (= [(\beta_1 + 2\lambda_1 \ln x_t) / \overline{w_G} + 1 - (\beta_2 + 2\lambda_2 \ln x_t)])$ 로 수정되어 소득 수준별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추정식 [식 4-1]과 [식 4-2]는 Deaton(1990)과 McKelvey(2011) 이후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는 관련 연구들의 기본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고, 본 연구의 담배에 대한 분석도 시계열자료와 중독성 이슈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와인의 경우 [식 4-1]의 재화 비중을 도출하기 위한 총 소득이나 총 가계지출액 변수가 연간자료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월간 자료인 와인 수입액에 비해 그 변동성이 매우 제약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 비중의 종속변수 대신에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식 4-1]을 변형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다. 이 경우 [식 4-2]와 더불어 계산되는 양적·질적 가격탄력성의 추정식들은 $(\theta / \overline{C_G} - \varphi)$ 와 $(\varphi - 1)$ 로 각각 수정된다.

나. 자료

와인의 경우 추정식 [식 4-1]의 종속변수로는 월간 와인수입액을 사용하고, 추정식 [식 4-2]의 종속변수인 월간 와인 단위가격 변수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사용한다. 단일 추정식 [식 4-1]과 단위가격을 가격설명변수로 사용하는 품질조정가격 방법론 등의 통상적인 수요 추정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한국무역협

회 자료가 제공하는 1988년에서 2019년까지 31년간의 상당히 긴 월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격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질적 요소와 독립된 가격변수가 필요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 기간인 45개의 월간자료(2016년 4월에서 2019년 12월)만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의 국가별·브랜드별 와인의 소비자가격은 통계청 자료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재화별 품질 다양성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2021)은 수입된 와인의 단순 평균가격을 활용하는 것으로, 질적 요소와 무관한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³⁵⁾

소득설명변수인 연간 1인당 GDP는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고, 연간 성인 인구 수는 통계청 자료(주요 인구지표)를 사용한다. 45개의 월간표본은 두 추정식의 종속변수나 와인 가격변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변동성을 가지나, 연간단위 설명변수인 소득과 성인 인구 수는 4개년만을 포함하므로 회귀분석 과정에서 충분한 변동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와인표본의 한계로 인해 소득 수준별 가격탄력성 도출 등은 변동성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담배에만 국한한다.

담배는 연도별 시계열자료(1981년에서 2018년)를 사용한다. 추정식 [식 4-1]의 종속변수인 대표적 개인의 담배지출 비중은 합계 담배판매액을 합계 가계지출액으로 나누어 도출하며, 담배판매액은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가계지출액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사용한다. 추정식 [식 4-2]의 종속변수인 담배 단위가격은 연도별 담배판매액을 담배판매량으로 나누어 도출하며, 판매액과 판매량은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자료를 사용한다. 추정식 [식 4-1]과 [식 4-2]의 핵심 설명변수인 가격변수는 통계청 명목 담배가격지수의 로그 값을 사용한다. 표본기간 중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담배의 명목가격은 4,500원으로 앞에서 설명한 대표 상품가격에 해당한다. 와인과 달리 38개년도의 표본기간에 대

35) 와인 가격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2021)을 참고.

해 소득변수(1인당 GDP)와 성인 인구 수 모두 충분한 변동성을 가진다.³⁶⁾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을 나타내는 추정식 [식 4-2]의 소득에 대한 단위가격의 계수인 β_2 의 값은 일반적으로 양(+)³⁷⁾의 값으로 예상되며, [그림 4-2]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 정도의 크기는 [그림 4-2]의 단위가격의 기울기로 나타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기울기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4]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실증분석 결과

[표 4-1]은 [식 4-1]과 [식 4-2]의 연립 추정방정식을 회귀분석한 추정치를 활용하여 양적 가격탄력성($\theta/\overline{w_G} - \varphi$)과 질적 가격탄력성($\varphi - 1$), 그리고 이들 두 가지 가격탄력성을 합한, 즉 단일재를 가정한 경우의 통상적인 가격탄력성($\theta/\overline{w_G} - 1$)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와인의 가격탄력성은 -1.119로 탄력적이며, 담배의 경우 비탄력적인 -0.794이다. 이 가격탄력성 값들은 각각의 재화에 대한 양적 선택만을 고려하는 통상적인 선행연구 추정치들과 큰 차이가 없다.³⁷⁾

본 실증분석의 핵심인 가격 상승에 대한 품질하향(quality shading)을 나타내는 질적 가격탄력성은 와인의 경우 -0.456이고 담배의 경우 -0.310으로 모두 양적 가격탄력성 값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나타낸다. 질적 가격탄력성의 비중이 와인의 경우 40.7%이며 담배의 경우 39.0%로, 총 가격탄력성의 약 40%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6)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부록 4]의 [부록 표 5] 참고.

37) 담배의 경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3에서 -0.6으로 보고하고 있으며(고석홍 2020, p. 18), 본 연구의 추정치는 이보다 약간 크다. 물론 본 연구의 양적 가격탄력성의 값(-0.456)은 선행연구의 가격탄력성 추정치 범위 내에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지출 비중이나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질적·양적 가격탄력성의 합계)와 담배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양적 가격탄력성 정보만을 나타냄) 추정치로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양적·질적 가격탄력성을 구분하여 추정하는 추정식 [식 4-2]의 단위가격 종속변수에 대한 가격변수의 계수(ψ) 추정치³⁸⁾는 가격 상승에 대한 품질하향 정도를 나타내며, 질적 가격탄력성($\psi - 1$)을 결정한다. 담배의 경우 이 계수 추정치가 0.69로 가격 인상이 단위가격을 상당히 증가시키지만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는 단위가격 변화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흡연자 중 일부가 어느 정도 낮은 품질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ψ 가 1의 값을 가진다면 가격 상승에 대해 질적 대체 없이 단위가격이 가격 변화에 맞추어 동일 비율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변화에 대한 질적인 대응을 나타내는 질적 가격탄력성 $\psi - 1$ 은 0의 값을 갖게 되고, 질적 가격탄력성을 양적 가격탄력성과 구분하는 작업은 불필요해진다. 따라서 ψ 추정치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체 여부를 알려주며, 질적 대체가 없다는 검정가설인 $\psi = 1$ 에 대한 통계적인 (단측)검정은 품질조정가격(quality adjusted price) 방법론의 유효성에 대한 검정 결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Prais and Houthakker(1955)가 단위가격의 가격변수 대체 가능성을 제한한 뒤로 독립적인(지역별) 가격 정보 없이 가계조사자료만을 사용한 수많은 실증연구에서 단위가격 자체를 가격의 대체변수로 사용하거나, 소득 등의 영향을 받는 질적 요소를 단위가격에서 제거하는 2단계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품질조정가격(quality adjusted price) 방법론이 사용되어왔다. 이 방법론의 기본 가정은 소비자가 소득 등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를 기반으로 브랜드 등의 질적인 요소를 일차적으로 먼저 결정하고, 이후 시장의 가격 수준이나 가격 변화에 맞추어 양적인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브랜드 등을 결정하는 질적 대응 없이 양적인 대응만을 한다는 것이다.

단위가격을 단순히 가격변수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연구들이나 품질조정가격 방법론에서는 단위가격의 반응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ψ 를 추정할 수 없기

38) 계수 추정치는 [부록 4]의 [부록 표 6] 참고.

때문에 위와 같이 품질과 소비량을 분리하여 결정하는 $\psi = 1$ 가정을 사용하였다. 양적·질적 선택을 동시에 허용하여 추정식 [식 4-1]과 [식 4-2]를 모두 활용하는 Deaton(1990)에서도 여전히 독립적인 가격변수가 없어 분리선호가설(Hicksian Separability Hypothesis)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ψ 값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의 재화에 대해 횡단면 미시자료와 독립적인 가격변수를 사용하여 분리선호 가정이 성립하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다.³⁹⁾

본 연구는 총량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브랜드 등에 더욱 민감한 기호품이자 중독성 이슈를 가진 와인이나 담배의 가격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기존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 구분된다. 와인이나 담배의 경우 두 재화가 가진 특성상 기호품이 아니거나 중독성이 없는 재화에 비해 가격 상승에 대응한 품질하향의 정도가 작을 수 있다.⁴⁰⁾ 두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와인 가격이 상승할 때 단위가격은 가격 변화의 절반인 0.54(표준오차는 0.066)만큼 변하고, 담배의 경우 와인보다는 크지만 역시 일대일 대응보다 작은 0.69(표준오차는 0.058)만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같이 기호품이면서 중독성이 있는 재화라도 가격 상승 시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저렴한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오차를 감안할 때 두 재화 모두 가격 변화에 대해 질적 대응이 없다는 가설($\psi = 1$)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한다.

39) Gibson and Kim(2015).

40) 소비자의 재화 브랜드 대체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하는 시계열 자료의 특성상 본 연구의 추정치는 가계조사자료 추정치보다 단기적으로 낮을 수 있다. 횡단면 자료의 가격탄력성 수치는 시계열 자료의 장기 가격탄력성과 대응되는데, 일반적으로 장기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담배의 중독성 이슈를 통제하는 전기(前期)의 지출비중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시계열 집계자료의 장기적인 추세를 통제하는 2차함수 형태 시간변수들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다(이영, 나성린 2007).

표 4-1. 재화별 양적·질적 가격탄력성 추정치

구분	와인	담배
양적 가격탄력성	-0.662* (0.343)	-0.483*** (0.055)
질적 가격탄력성	-0.456*** (0.066)	-0.310*** (0.058)
가격탄력성	-1.119*** (0.322)	-0.794*** (0.07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p(0.1)$, $p(0.05)$, $p(0.01)$ 을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질적 탄력성의 비중(약 40%)과 비교하기 위해 주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표 4-2]에 정리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재화인 담배의 경우 횡단면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한 파푸아뉴기니의 가격탄력성은 -1.035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나타났다. 파푸아뉴기니가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임을 감안할 때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파푸아뉴기니의 총 가격탄력성에서 질적 가격탄력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표 4-2]의 베트남 쌀에 대한 질적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는 경제위기나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시사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쌀은 주식이자 핵심적인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보다 저소득국가인 베트남에서 쌀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높다(-0.827).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질적 가격탄력성(68% 비중)이고 양적 가격탄력성(-0.265)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2]에 대한 논의는 소득 수준별 질적 가격탄력성인 [표 4-3]의 추정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전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와인 자료의 시계열과 관련한 한계 때문에 소득 수준별 분석인 추정식 [식 4-3]과 [식 4-4]는 담배에만 국한해 수행하였다.

표 4-2.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양적·질적 가격탄력성 추정치

구분	베트남(쌀)	파푸아뉴기니(담배)
양적 가격탄력성	-0.265*** (0.037)	-0.312*** (0.044)
질적 가격탄력성	-0.563*** (0.039)	-0.723*** (0.038)
가격탄력성	-0.827*** (0.023)	-1.035*** (0.008)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와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p(0.1)$, $p(0.05)$, 그리고 $p(0.01)$ 를 나타낸다. 자료: 베트남의 추정치는 Gibson and Kim(2013), p. 337; 파푸아뉴기니의 추정치는 Gibson and Kim(2019a), p.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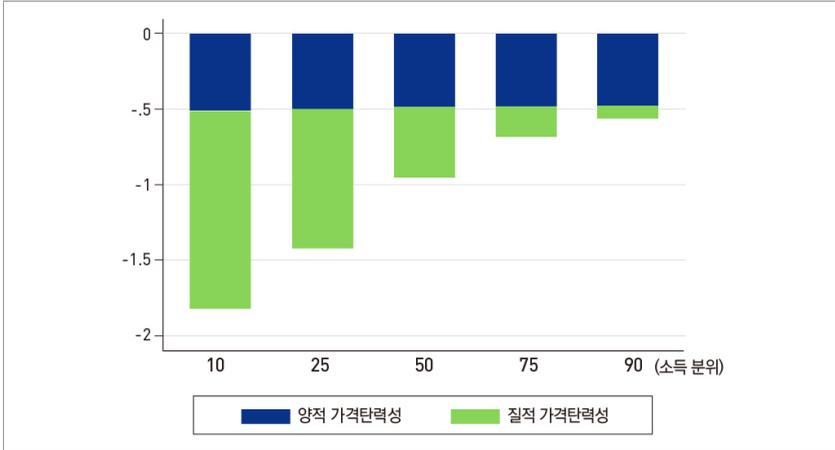
표 4-3. 소득 수준별 담배의 가격탄력성 추정치

구분	소득 10%	소득 25%	소득 50%	소득 75%	소득 90%
양적 가격탄력성	-0.515* (0.242)	-0.504** (0.154)	-0.490*** (0.063)	-0.483*** (0.057)	-0.479*** (0.074)
질적 가격탄력성	-1.307*** (0.191)	-0.921*** (0.122)	-0.465*** (0.052)	-0.204*** (0.049)	-0.084 (0.062)
가격탄력성	-1.823*** (0.311)	-1.425*** (0.197)	-0.956*** (0.080)	-0.687*** (0.073)	-0.563*** (0.09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와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p(0.1)$, $p(0.05)$, 그리고 $p(0.01)$ 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3]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림 4-3]을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총 가격탄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 수준별로 양적 가격탄력성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질적 가격탄력성의 절댓값과 그 비중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지출액은 줄이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양적인 후생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무역 자유화 등으로 품질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은 평상시의 양(+)의 후생효과와 더불어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의 대응방안으로서 선택의 폭을 확대해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림 4-3. 소득 수준별 담배의 양적·질적 가격탄력성 구성



자료: 저자 작성.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은 소득변수의 변동성이 적절한 담배의 경우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먼저 추정식 [식 4-1]과 [식 4-2]를 활용한 소득탄력성은 0.553으로 우리나라 담배의 경우 필수재로 분류된다. 이 중 질적 소득탄력성은 0.342로 비중 면에서 61.8%를 차지해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저소득국가인 파푸아 뉴기니의 경우 담배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1을 넘어 사치재로 보고되었고, 이처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큰 소득탄력성이 나타나는 사례는 다른 연구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⁴¹⁾ [표 4-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하게 질적 대응 부분을 고려한 소득탄력성은 대부분의 소득 수준에서 필수재의 영역에 머무른다. 중위소득의 경우 총 소득탄력성은 0.448이고,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은 하위 10%의 경우도 0.677로 1보다 작다. 앞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논의와 유사하게 소득 수준별로 양적 소득탄력성은 거의 변화가 없고 질적 소득탄력성의 절댓값과 그 비중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1) Gibson and Kim(2019a).

[그림 4-4]를 통해 이러한 패턴을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잠재적인 경제위기에서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전체적인 소비량, 즉 양적인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 등으로 품질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소비자 후생효과에 더해, 소득이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질적 소득탄력성이 커지는 패턴을 쌀이나 돼지고기 등의 주식류에 적용하고, 이들 재화에서의 품질 차이가 칼로리 등 건강지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맛이나 도정도와 같은 가공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때, 소득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품질 다양성의 확보는 저소득층의 경제위기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다. 나아가 최근 급부상한 식량안보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도 이러한 품질 다양성 및 질적 대응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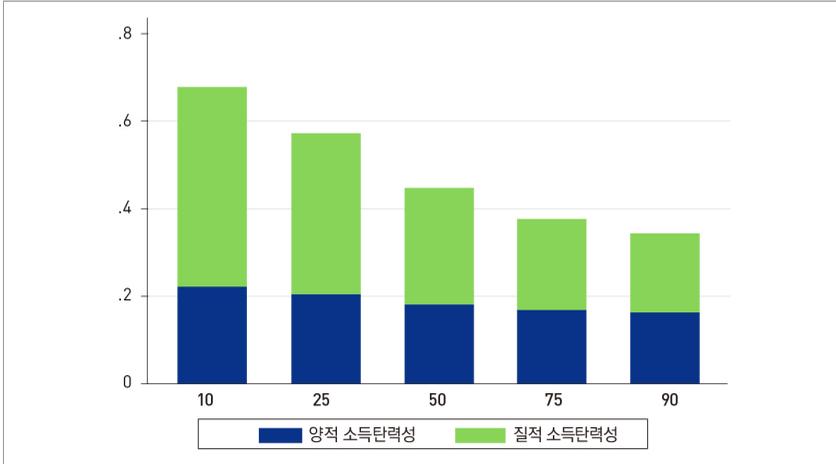
경제위기 시 품질하향 대응을 가능케 하는 품질 다양성의 확보는 McKenzie, Schargrotsky, and Cruces(2011)의 경제위기 시 탐색 시간의 확대를 통한 할인상품의 소비전략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과 상응한다. McKenzie, Schargrotsky, and Cruces(2011)에 따르면 탐색 시간이나 쇼핑 시간의 확대를 통한 지출액의 감소도 아울렛 등의 할인판매점이나 할인상품의 존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표 4-4. 소득 수준별 담배의 소득탄력성 추정치

구분	소득 10%	소득 25%	소득 50%	소득 75%	소득 90%
양적 소득탄력성	0.224 (0.177)	0.205 (0.170)	0.182 (0.181)	0.169 (0.197)	0.163 (0.204)
질적 소득탄력성	0.453** (0.184)	0.367** (0.172)	0.265 (0.178)	0.207 (0.190)	0.181 (0.197)
소득탄력성	0.677** (0.248)	0.572** (0.234)	0.448* (0.246)	0.377 (0.265)	0.344 (0.27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와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p(0.1)$, $p(0.05)$, 그리고 $p(0.01)$ 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4. 소득 수준별 담배의 양적·질적 소득탄력성 구성



자료: 저자 작성.

지금까지 논의한 품질 다양성과 소비자의 질적 대응의 순기능과는 대조적으로, 소비자의 질적 대응과 품질 다양성의 확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로 유해재화세가 있다. 낮은 품질의 담배나 독주(毒酒)의 경우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담뱃세나 독주에 대한 특별 주류세가 부과될 때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보건 지표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책의도에 반해 역효과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책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제5장 2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다.

3. 소결

본 장은 FTA 등 무역 자유화에 따른 품질 다양성의 증가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품질 다양성을 활용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무역 자유화에 따른 관세 인하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품질하향 대응(quality shading)을 취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와인과 담배에 관한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질적 마진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질적 마진의 활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특성(소득계층 등)을 고려한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와인과 담배 모두 가격 변화에 대해 양적 대응에 준하는(또는 그 이상의) 비중으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가격 상승에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이의 대부분이 질적 대응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소비자의 대응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효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변화에 대응하는 품질 조정 기능도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질적 대응 정도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큰 경우 소비자가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총 지출액은 줄이는 질적 대응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

할 때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가격 변화에 대해 소비자가 질적 대응을 취한다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 확대가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담뱃세의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소비를 대체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보건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FTA와 같은 무역 자유화 정책이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 가격 변화에 따른 품질 다양성의 증가가 소비자 행동, 특히 질적 대응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하는 질적 마진과 품질하향 대응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와 무역 자유화에 따른 상품 다양성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 변화가 제한적인 이유와 소비자 후생과 관련한 정책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국의 통관자료와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와인 수입의 상품 다양성 및 품질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 와인 수입의 상품 다양성과 수입단가로 나타난 품질 다양성 모두 2002년 이후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품질 다양성의 경우 모든 가격대에 걸쳐 고르게 수입된 미국산 와인이 있는가 하면 칠레산 와인은 1만 원대 및 4만 원대에 집중되어 있는 등 원산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품질 다양성 관련 실증분석에서는 와인과 담배에 관한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 변화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구하고, 이를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으로 구분하여 추정함으로써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던 질적 마진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무역 자유화에 따른 관세 인하 등으

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 고품질재를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때 품질하향 대응(quality shading)을 취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와인과 담배 모두 가격 변화에 대해 양적 대응에 준하는 상당한 비중의 질적 대응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가격 상승에 품질하향으로 대응한다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에서 비롯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 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으로,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실질소득의 급감) 시기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론의 원천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평가할 때 품질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야 할 근거가 된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는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과 관련하여 재화의 종류에 따라 품질 다양성 확대가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담뱃세의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보건지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낮은 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오히려 정

책효과 면에서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재화들을 대상으로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시사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무역 자유화로 인한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소득 분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소비가 확대된 주요 수입소비재로서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이 커졌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품질 다양성 유도 메커니즘으로서 가격 및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와인 외에도 담배나 쌀, 돼지고기를 대상에 포함하여 정책 또는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경제위기 극복 메커니즘으로서 품질 다양성 효과를 고려한 소비자 후생 변화가 주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2. 정책시사점

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에서 질적 대응의 역할

팬데믹 기간 자전거 등 일부 수입 품목은 공급 부족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험하였고, 최근의 전 세계적인 재정지출 증가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수요 유도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의 확보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 메커니즘을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후생 감소를 실효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메커니즘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급이나 수요 측면 단독으로, 또는 수요와 공급이 결합되어 발생한 가격 상승(1단계)에 대해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2단계), 국민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비 지표(칼로리 등)의 감소(3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3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제학적 실증분석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단계인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가격탄력성으로 측정하여 후생 감소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즉 추정된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특정 정도의 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후생효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FTA와 같은 무역 자유화를 통해 품질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질적 대응 가능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후생증대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기존에 비축한 재화(쌀 또는 돼지고기 등)의 시장 공급을 늘리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격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 부족으로 인한 특정 재화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Gibson and Kim(2013)의 연구는 2007년 베트남 정부가 쌀 수출을 중지함에 따라 단기간에 쌀의 국제가격이 3배나 상승하는 등 국제시장

에서 쌀 가격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무역 개입 조치는 다양한 품질의 소비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 베트남의 쌀 가격탄력성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⁴²⁾ 그러나 이러한 쌀 수출 증지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을 통해 일정 부분 양적 소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양적 마진을 모두 포함한 높은 가격탄력성만 고려한 결과 쌀 가격 상승이 쌀 소비의 양적 감소 및 칼로리 소비량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초한 것이었다.

Gibson and Kim(2013)은 급격한 쌀 가격 상승에 소비량 감소라는 양적 대응과 더불어 비싼 쌀의 소비를 낮은 품질의 쌀 소비로 대체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저품질의 쌀 소비에서 오는 칼로리 감소가 그리 크지 않고, 나아가 쌀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다른 소비식품의 품질도 낮추는 질적인 교차 가격탄력성 추정치도 감안하여 쌀 가격 상승에 따른 모든 대체식품의 종합적인 칼로리 감소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Gibson and Kim(2013)의 연구 결과는 공급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나 소득 감소 시기에 소비자는 쌀의 색깔 등 실질적인 영양가와 무관한 저품질의 쌀 소비로 대체함으로써 적정 소비량의 유지 및 필수 칼로리 섭취가 가능케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편 이러한 쌀 소비 감소 및 칼로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저소득층에 더 크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 장에서 분석한 저소득층의 높은 질적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라는 결과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여부는 저품질 쌀의 존재로 인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쌀 생산 관련 정책에도 문제를 유발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1980년 이후 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품질 쌀 위주로 공

42) Gibson and Rozelle(2011).

급을 변화시켜 급격한 쌀 가격의 상승에 대응할 저품질 쌀의 존재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퇴출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경제위기 등의 소득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품질 다양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시 고품질 와인 수출이 급감한 사례⁴³⁾는 향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고품질 쌀 생산에 집중하는 정책이 베트남의 쌀 수출에 잠재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생적인 가격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의 질적 대체 행위는 경제위기 등 외부적인 소득충격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한 연구들과도 연계된다. 외부충격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으로 McKenzie, Schargrotsky, and Cruces(2011)는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의 대응전략으로 상품 구매 시 평상시보다 더 저렴한 물품을 찾으려 노력하는 행위에 대해 분석한다. 소득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저하 대응의 일례로 Chen and Juvenal(2018)은 경제위기 동안 많은 국가에서 와인 수입량을 줄이지 않고 보다 싼 품질의 와인을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 소득 감소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나. 유해재화세 운용에서 질적 대응의 역할

본 연구는 특정 품목에 외생적인 가격 변화를 가져오는 물품세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으로 구분하는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양적 마진만을 고려하는 통상적인 물품세 정책효과 분석의 타당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보다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해 Chung, Chung, and Kim(2022)에서 일부 논의한 내용을 더 확장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담뱃세나 소다세와 같이 특정 물품세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재정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거양득의 정

43) Chen and Juvenal(2018).

책도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소다세(탄산음료세 또는 Sugar Sweetened Beverage Tax)는 비교적 탄력적인 수요가격탄력성 추정치에 근거해 소비량을 줄이고 비만 관련 질병 발생률을 가장 실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으로 여겨진다. 일례로 Briggs *et al.*(2013)은 20%의 소다세가 부과되면 영국의 비만 인구가 매년 18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기술하였고, Basu *et al.*(2014)은 20%의 소다세를 10년 정도 유지하면 인도의 비만환자가 1,10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소다에 대한 탄력적인 수요 가격탄력성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 및 재정 확대 측면에서 유사한 유해재화세로서 담뱃세의 도입도 일차적으로는 담배 소비량의 감소나 흡연 자체를 중단하는 금연을 유도하여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을 평가할 때 전체 흡연 수요에 대한 반응을 가격탄력성이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지표를 통해 후생효과를 논의하는 것이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다. 즉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인상된 세금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격이 상승하고(1단계), 소비자는 재화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2단계), 줄어든 담배 소비는 건강 유해요인(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흡수를 줄이고(3단계), 끝으로 줄어든 건강 유해요인 소비는 궁극적으로 관련 질병(폐암 등)의 발생을 줄이는(4단계) 여러 단계 중 경제학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둘째 단계인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가격탄력성의 추정 및 활용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해재화세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의 대상이 되는 담배나 소다 등의 유해재화는 다른 모든 재화와 동일하게 다양한 가격대의 여러 브랜드로 구성되며 동일 브랜드 내에도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종류가 매우 제한적인 제품인 콜라도 브랜드나 패키지 등의 요소로 인해 9:1까지 가격 차이가 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다른 브랜드 또는 동일 브랜드 내에서 품질이 다른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소비를 유도한다.⁴⁴⁾ 상당한 품질 다양성을 가지는 담배

도 인상된 가격에 대응해 흡연자는 금연이나 흡연 감소, 또는 저렴한 담배로 대체하면서 소비량을 유지하는 등 소비량 감소와 다른 종류 담배로의 전환이라는 결합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유해재화 내에서 다른 가격대 제품으로의 질적 대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수요가격탄력성 수치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에 따른 반응을 합한 값을 하나의 수치로 제공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단일제품을 가정한 상태에서 추정된 통상적인 가격탄력성은 가격 인상에 따른 개인의 소비량 감소만이 아니라 품질이 낮은 재화로 대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재화세의 부과로 인한 소비량의 감소와 이에 상응하는 건강 지표상의 기대 이득을 과대평가하게 되어 보건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과장시키는 측면이 있다.

만일 양적 마진 반응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낮은 품질 재화로 질적 대체가 상당할 경우, 담뱃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McKelvey(2011)와 Gibson and Kim(2019a)의 연구에 의하면, 폐암이나 비만 발생률과 같은 유해재화 관련 보건정책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 여부는 건강 지표에 상대적으로 더 해로운 저품질재 소비 비중의 확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품질 담배라는 선택지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⁴⁵⁾

유해재화세 관련 논의는 앞서 언급한 쌀이나 돼지고기의 경우에 품질 다양성의 확보가 소비자후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논의와 정확히 반대되는 논지를 가진다. 소비재의 품질이 건강 지표와 항상 일정한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쌀의 경우 맛이나 질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품질이 결정되지만 이 요소들은 사실상 건강 지표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저품질

44) Gibson and Kim(2019b).

45) Partos *et al.*(2018).

재인 값싸고 맛있는 쌀이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고 건강 지표상으로도 더 우수할 수 있다.⁴⁶⁾ 그러나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식품과 달리,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포함된 담배와 같은 유해재화의 경우 품질과 건강 지표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한편 담뱃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과세 단위를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의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이유로 종량세가 종가세보다 보건 지표 측면에서 더 선호된다. 국내에서도 상대가격의 변동 측면에서 종가세로 인한 가격 상승에 따른 질적 하향조정(quality shading)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의 경우 종량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⁴⁷⁾ 물가 상승에 따른 담배의 실질가격 인하와 그에 따른 담배 소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담뱃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⁴⁸⁾

이러한 과세 방식 및 물가연동제 등의 논의에 대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종량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저품질 담배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품질재의 수요 감소만을 다루고 종가세를 통한 전체적인 담배가격의 상승에서는 품질하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종가세 부과 시에도 품질하향에 의한 저품질재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 있다. 과세 방식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종량세에서는 전반적인 담배가격 상승에 의한 저품질재의 수요 증가와 상대가격의 변동에 의한 저품질재의 수요 감소가 서로 상쇄되어 저품질재의 수요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유해재화세의 경우 과세 방식과 더불어 저품질재의 존재와 소비자의 품질하향 대응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

46) 재화의 품질과 가격에 관련해서는 국가별 또는 시기별로 다를 수 있는데 종종 보건이나 건강과 관련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과거 한국에서 백미가 현미보다 비싸고 품질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보리 등 잡곡은 쌀에 비해 값싸고 품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실제 영양소나 건강 관련 요소들은 당시 값싸고 저품질로 여겨지던 현미나 잡곡이 더 우수한 경우가 그 일례라 하겠다.

47) 최병호, 이근재(2015).

48) 박상원, 성명재(2013).

이라는 직접적인 정책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재화에 대한 담배의 상대가격을 유지하여 담배 소비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물가연동제 논의도 마찬가지다. 물가연동제가 없는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상당 기간(약 5년 주기) 동안 명목가격을 유지하면서 실질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때 소비자들이 질적 대응을 택해 담배의 양적 소비를 늘리기보다 품질 상향으로 대응할 경우 궁극적인 건강 지표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담뱃세 인상이라는 보건정책의 목표가 흡연 감소보다는 금연에 더 주안점이 있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연 캠페인과 같은 비가격 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담배 소비에서 양적 가격 탄력성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소득 수준이 변해도 양적 비중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다만 금연을 통한 흡연 감소는 질적 대응이 아니라 양적 대응의 한 부분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담뱃세를 이용한 가격 인상은 금연이나 흡연량 감소보다는 질적 대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품질하향 대응을 막기 위해서는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금연이라는 양적 대응을 유도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무역 자유화와 품질 다양성의 후생효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나타난 상품별·국가별 수입 다양성의 확대와 그에 따른 후생효과(가격 하락 및 실질 소득 증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상품 내 품질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서진교 외(2012)는 무역 자유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분석하는데 234개 품목의 다양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 다양성의 확대가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소비자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 와인의 품질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통계 및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의 확대는 국내 실질 외인가격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으로 강조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에 따른 후생효과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품질하향 대응을 통해 후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무역이익에 더하여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대가 전체 소비자의 후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으로 무역 자유화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소비자(대체로 저임금 근로자에 상응)의 후생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상정책의 설계와 수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재편 움직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경제안보를 이유로 팽배해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국내정치적 요인 등이 맞물려 과거에 비해 국제무역의 성장세와 세계화의 진전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도 고조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와 정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가운데 무역 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적 비판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자 소득계층별로 누진적 성격을 띠는 품질 다양성 확대가 경제 전반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에게 특히 유용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논의 결과는 과거와 달라진 세계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국민의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방향이 여전히 세계화의 진전과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고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고석홍. 2020. 「한국 담배수용의 가격탄력성 추정에 대한 양적, 질적 분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곽노선, 임호성. 2018.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국제경제연구』, 24(4): 55~82.
- 박상원, 성명재. 2013. 「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 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6.2: 1-40.
- 서진교, 정철, 이준원, 정운선. 2012.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원호, 나수엽, 박민숙, 김영선. 2020.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영, 나성린. 2007. 「한국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한국경제연구』, 19: 151~171.
- 이제홍. 2013. 「한국소비자의 FTA 발효국 제품에 관한 구매효과 분석」. 『무역학회지』, 38(5): 437-457.
- 최병호, 이근재. 2016. 「우리나라 담배수요 함수의 추정과 담뱃세 정책에 관한 함의」. 『경제학연구』, 63.4: 53~80.
- 최희진, 최병호, 변광인. 2005. 「와인수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외식산업학회지』, 1(1): 151~170.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 「2021년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 한국소비자원. 2019. 「FTA 소비자 후생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7월)
- _____. 2021. 「수입 와인 가격 및 유통실태 조사」. 『조사보고서』. (7월)
- 황문연, 이학노. 2016. 「한-칠레 FTA 가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 연구」. 『국제통상연구』, 21(4): 1~32.

[영문자료]

- Amiti, M., S. Redding and D. Weinstein. 2019. "The Impact of the 2018

- Trade War on U.S. Prices and Welfare.” NBER Working Paper 25672.
- Andalón, M. and J. Gibson. 2017. “The ‘soda tax’ is unlikely to make Mexicans lighter: New evidence on biases in elasticities of demand for soda.” Discussion Paper, no.10765.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 Arkolakis, Costas, Arnaud Costinot, and Andres Rodriguez-Clare. 2012. “New Trade Models, Same Old Gai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1): 94-130.
- Arkolakis, Costas, Svetlana Demidova, Peter J. Klenow, and Andres Rodriguez-Clare. 2008. “Endogenous Variety and the Gains from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444-450. (May)
- Armington, P. S. 1969.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Staff Papers, 159-17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Basu, S., S. Vellakkal, S. Agrawal, D. Stuckler, B. Popkin, and S. Ebrahim. 2014. “Averting Obesity and Type 2 Diabetes in India through Sugar- Sweetened Beverage Taxation: An Economic-Epidemiologic Modeling Study.” *PLoS Med*, 11(1): e1001582. doi:10.1371/journal.pmed.1001582.
- Blonigen, Bruce A. and Anson Soderbery. 2010. “Measuring the Benefits of Product Variety with an Accurate Variety Se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2(2): 168-180.
- Briggs, A., O. Mytton, A. Kehlbacher, R. Tiffin, M. Rayner, and P. Scarborough. 2013. “Overall and income specific effect on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obesity of 20% sugar sweetened drink tax in UK: econometric and comparative risk assessment modelling study.” *BMJ*, 347: f6189.
- Broda, Christian and David E. Weinstein. 2006. “Globalization and the Gains from Varie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2): 541-585.
- Chaloupka, F., R. Peck, J. Tauras, X. Xu, and A. Yerekli. 2010. “Cigarette excise taxation: The impact of tax structure on prices, revenues, and cigarette smoking.” NBER Working Paper.
- Chen, N. and L. Juvenal. 2018. “Quality and the great trade collapse.”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5: 59-76.
- Chung, C., M. Chung, and B. Kim. 2022.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35(1): 21-46.
- Cox, T. and M. Wohlgenant. 1986. "Prices and quality effects in cross-sectional demand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8(4): 908-919.
- Deaton, A. 1988. "Quality, quantity, and spatial variation of price." *American Economic Review*, 78(3): 418-430.
- _____. 1990. "Price elasticities from survey data: extensions and Indonesian results." *Journal of Econometrics*, 44(3): 281-309.
- Fajgelbaum, Pablo D., Pinelopi K. Goldberg, Patrick J. Kennedy, and Amit K. Khandelwal. 2020. "The Return to Protectio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1): 1-55.
- Feenstra, Robert C. 1994. "New Product Varieties and the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Pr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84(1): 157-177.
- _____. 2010. *Product Variety and the Gains from International Trade*. MIT Press.
- Feenstra, Robert C. and David E. Weinstein. 2010. "Globalization, Markups, and U.S. Price Level." NBER Working Paper 15749.
- Fleischer, A. and J. Rivlin. 2009. "More or better?: Quantity and quality issues in tourism consump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7(3): 285-294.
- Gibson, J. and B. Kim. 2013. "Quality, quantity, and nutritional impacts of rice price changes in Vietnam." *World Development*, 43(1): 329-340.
- _____. 2015. "Hicksian separability does not hold over space: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household surveys and price questionnair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14(1): 34-40.
- _____. 2017. "Thirty Years of Being Wrong: A Systematic Review and Critical Test of the Cox and Wohlgenant (1986) Approach to Quality-Adjusted Prices in Demand Analysis." Working Papers in Economics 17/16. University of Waikato.
- _____. 2018. "Economies of scale, bulk discounts, and liquidity constraints: comparing unit value and transaction level evidence in

- a poor country.”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6(1): 21-39.
- _____. 2019a. “The price elasticity of quantity, and of quality, for tobacco products.” *Health Economics*, 28(4): 587-593.
- _____. 2019b. “Quality, quantity, and spatial variation of price: Back to the bog.”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7: 66-77.
- Gibson, J. and S. Rozelle. 2011. “The effects of price on household demand for food and calories in poor countries: Are our databases giving reliable results?” *Applied Economics*, 43(27): 4021-31.
- Harris, Richard. 1984.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Small Open Economies with Scale Economies and Imperfect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4(5): 1016-32.
- Heien, D. and E. N. Sims. 2000. “The Impact of the Canad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on U.S. Wine Expor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2: 173-182.
- Kim, D., M. Yun, M. Kim, W. Sung, and S. Chun. 2015. “The Price Elasticity on Alcoholic Beverag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6(1): 41-53.
- Krugman, P. 1979.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4): 469-479.
- McKelvey, C. 2011. “Price, unit value and quality demanded.”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5(1): 157-169.
- McKenzie, D., E. Schargrodsky, and G. Cruces. 2011. “Buying less but shopping more: The use of nonmarket labor during a crisis.” *Economía*, 11(2): 1-43.
- Mohler, Lukas. 2011. “Variety Gains from Trade in Switzerland.” *Swiss Society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47(1): 45-70.
- Park, J. and O. Capps. 1997. “Demand for prepared meals by U.S. househol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9(3): 814-824.
- Partos, T., A. Gilmore, S. Hitchman, R. Hiscock, R. Branston, and A. McNeill. 2018. “Availability and Use of Cheap Tobacco in the United Kingdom 2002-2014: Findings From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roject.” *Nicotine & Tobacco Research*, 20(6): 714-724.
Prais, S. and H. Houthakker. 1955.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온라인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검색일: 2022. 12. 23).
보건복지통계연보.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검색일: 2022. 11. 4).
와인21닷컴. https://www.wine21.com/13_search/wine_list.html(검색일: 2023. 1. 19).
이마트몰. <https://emart.ssg.com/item/itemView.ssg?itemId=1000030441146&siteNo=6001&salestrNo=6005>(검색일: 2023. 1. 10).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검색일: 2022. 11. 4).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2. 10. 3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검색일: 2022. 12. 2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검색일: 2022. 11. 4).
KT&G. <https://www.ktng.com/ktngNewsView?cmsCd=CM0019&ntNo=940&rnum=283>(검색일: 2023. 2. 10).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23. 1. 2).

[기타 비공개 자료]

한국소비자원.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자료」.

1. 한국의 전체·농축수산물·주류 수입의 상품 다양성

가. 전체 수입

한국의 수입은 HS 10단위 코드(HSK)를 기준으로 2002년 1만 214개 세번(tariff line)과 230개 국가에 대해, 2021년 1만 1,215개 세번과 245개 국가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2002~21년 동안 세번의 수는 연평균 0.5%, 국가의 수는 연평균 0.3% 증가했다. 한국은 세계 수입에서 2002년 14위, 2021년 9위 규모에 달하는 국가인 만큼, 과거부터 매우 다양한 품목과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이 이루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수입이 이루어진 세번 수 및 상대국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전체 수입 기준인 만큼 세번 수 및 국가 수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세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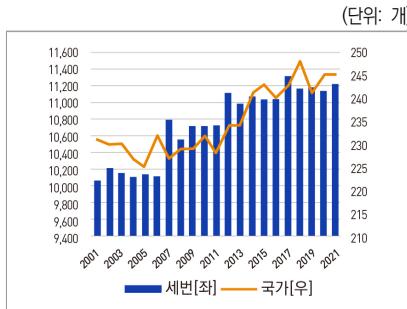
수입의 상품 다양성 증가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HS 10단위 코드(이하 다양성)'의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2년 10만 712개에서 2021년 16만 8,922개로 약 1.7배, 2002~21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2.8% 증가했으며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수입 금액은 2002년 1,521억 달러에서 2021년 6,150억 달러로 연평균 7.6% 증가해 다양성의 증가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기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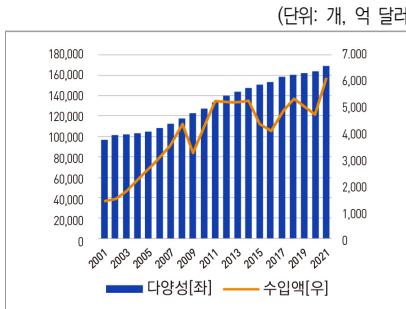
49) 연도별로 세번 수는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소폭 감소한다. 이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HSK코드 개정 시기와 일치하는데, 해당 연도에는 전년도와 구버전 HSK코드와 새로운 HSK코드가 혼용되어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따른 중복 집계로 HSK코드의 수가 평년보다 많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수입이 이루어지던 품목들에 대한 수입액 증가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수입대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중간재, 에너지, 자원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전, 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관련 시장에서는 국내산 제품의 위상이나 소비 경향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한국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난 20년간 연평균 2.8%에 달하는 다양성의 증가는 작지 않은 수준이며, 이러한 다양성의 증가에 기인한 무역이익 역시 기대된다.

부록 그림 1. 한국의 전체 수입에 대한 세번 및 국가 수 추이



부록 그림 2. 한국의 전체 수입에 대한 다양성 및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농축수산물 수입

농축수산물은 한국의 무역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시장 개방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였다. 따라서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을 통해 오히려 새롭게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게다가 관련 품목들이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비재라는 측면에서 상품 다양성 증가 및 소비자 후생 증대와 관련이 높은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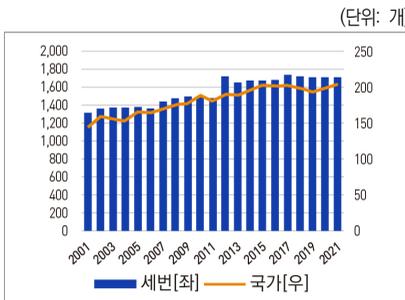
한국의 농축수산물 수입은 2002년 1,368개 세번과 160개 국가에 대해, 2021년 1,716개 세번과 205개 국가에 대해 이루어졌다. 각각 20년 동안 연평

균 1.2% 및 1.3% 증가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전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0.5% 및 0.3%)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2~21년 기간 내 연도별로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는데, 단 2010년대 중·후반기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다.

농축수산물 수입의 상품 다양성 역시 2002년 7,659개에서 2021년 1만 9,069개로 약 2.6배 증가하였고 2002~21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 4.9%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수입의 상품 다양성 연평균 증가율 2.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연도별 증가 추세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최근 2020~21년에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의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2002년 94억 6,000만 달러에서 2021년 389억 2,000만 달러로 연평균 7.7% 증가해왔다. 농축수산물 수입액의 증가는 전체 수입액 증가(7.6%)와 비슷한 수준이나, 수입액 증가와 다양성 증가 간의 차이는 2.8%p로 전체 수입(4.8%p)에 비해 작았다. 즉 농축수산물 수입에서는 새로운 다양성 증가의 영향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직관적으로도 육류 및 과일, 낙농품 등에 대한 다양성의 향유나 품질 선택 등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가 역시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그림 3. 한국의 농축수산물 수입에 대한 세번 및 국가 수 추이



부록 그림 4. 한국의 농축수산물 수입에 대한 다양성 및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주류 수입

한국의 주류 시장은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적으로 2020년 국내 주류의 생산액(출고금액 기준)은 8조 8,000억 원이었는데, 이는 2020년 주류 수입액의 한화(원) 추정치인 1조 3,000억 원⁵⁰⁾을 6배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다.⁵¹⁾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주류 시장에는 와인을 비롯해 위스키, 맥주, 꼬냑, 청주 등 매우 다양한 주류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입 및 판매되어왔다. 특히 과거 2000년 무렵에는 위스키가 주류 수입의 약 79.9%를 차지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와인과 맥주를 중심으로 여러 다른 주류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위스키의 비중이 감소하고 다양한 수입 주류가 혼재하는 소비 시장으로 변모하였다.

한국의 주류 수입⁵²⁾은 2002년 33개 세번과 56개 국가에 대해, 2021년 40개 세번과 101개 국가에 대해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세번의 수는 2000년대와 2010년대 전반에 걸쳐 별다른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2017년부터 평균 5개 내외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2017년에 와인에 대한 3종의 HS 10단위 코드가 신설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새로운 품목이 수입되는 변화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⁵³⁾ 반면 수입 상대국의 수는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주류 수입의 다양성 증가는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 주류의 상품 다양성은 2002년 310개에서 2021년 861개로 약 3배 증가하였고 2002~21년 평균적으로는 5.5% 증가했다. 각 연도별로는 2000년대

50) 제조용 주정을 포함한 금액(달러)이며, 당시 환율(1,200원/달러)을 적용하여 임의로 환산한 금액이다.

5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p. 9,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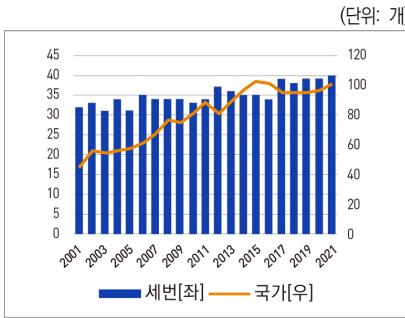
52) 제조용 주정(HS_2207 등)을 제외하고, 맥주(HS_2203), 와인(HS_2204), 베르무트(HS_2205), 기타 발효주(HS_2206), 꼬냑(HS_2208.20), 위스키(HS_2208.30), 럼(HS_2208.40), 진(HS_2208.50), 보드카(2208.60), 리큐르(HS_2208.70), 기타(HS_2208.90)에 대한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53) 2017년 HSK에서는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포도주 3종(레드, 화이트, 기타)이 추가되었다.

중반까지 오히려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세가 시작되어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주류 수입액은 2002년 3억 2,000만 달러에서 2021년 10억 8,000만 달러로 연평균 6.5% 증가했다. 상품 다양성 증가(5.5%)와의 차이는 1.0%p로 앞서 살펴본 전체 수입(4.8%p)이나 농축수산물 수입(2.8%p)의 경우보다 그 격차가 더욱 작다. 특히 2021년 수입은 10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8%로 크게 증가했는데, 상품 다양성 역시 861개로 전년도(754개)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⁵⁴⁾

부록 그림 5. 한국의 주류 수입에 대한 세번 및 국가 수 추이



부록 그림 6. 한국의 주류 수입에 대한 다양성 및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한국의 상품 다양성 변화와 수입액

지난 20년간 상품 다양성의 변화가 실제 수입에 미친 영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2년과 2021년 사이의 다양성 변화와 그에 따른 수입액 규모를 살펴본다.⁵⁵⁾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HS 6단위’⁵⁶⁾를 기준으로 2002

54) 큰 폭으로 증가한 2021년을 제외하고 2002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수입액 증가는 연평균 4.7%, 다양성 증가는 4.8%로 수입 증가와 다양성 증가의 격차는 더욱 작아진다.

55) 상품 다양성 변화는 Feenstra(1994)의 가격지수를 보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다양성 변화 측정 방법을 기초로 한다. 관련 내용은 Feenstra(1994), p. 159; Broda and Weinstein(2006), pp. 21-22; 서진교 외(2012), p. 81 참고.

년 및 2021년에는 총 12만 8,674개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5만 8,356개의 다양성이 2002년에는 없었으나 2021년 새롭게 수입되었다(진입). 또한 1만 8,917개의 다양성은 2002년에는 수입되었으나 2021년에는 수입되지 않았으며(퇴출), 나머지 5만 1,401개는 2002년과 2021년 모두 수입이 이루어졌다(공통). 퇴출된 다양성과 진입된 다양성의 수 차이가 3배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실제 수입액 규모 역시 진입 616억 1,000만 달러(2021년 기준), 퇴출 143억 5,000만 달러(2002년 기준)로 약 4배 차이가 났으며, 전체 수입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02년 9.4%(퇴출) 및 2021년 10.0%(진입)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2002년과 2021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다양성에 대한 수입액 변화가 1,378억 달러에서 5,534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했으며 비중 역시 2002년과 2021년 모두 약 90%에 달하는 만큼, 공통다양성에서의 수입액 증가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록 표 1. 한국 전체 수입의 상품 다양성 비교: 2002년 vs 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개)

다양성 구분	수입액				다양성 (HS6+국가) ⁵⁷⁾	품목(HS6) 당 국가 수	
	2002년	(비중)	2021년	(비중)		2002년	2021년
공통	137,772	(90.6)	553,429	(90.0)	51,401	11.3	11.3
퇴출	14,354	(9.4)	-	-	18,917	4.2	-
진입	-	-	61,608	(10.0)	58,356	-	12.5
전체	152,126		615,037		128,674	13.4	20.9

주: 공통은 2002년과 2021년 모두 존재하는 다양성, 퇴출은 2002년에만 존재하는 다양성, 진입은 2021년에만 존재하는 다양성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6) 앞에서의 기술과는 다르게 HS 10단위가 아닌 HS 6단위를 이용하여 다양성을 정의하였다. 이 경우 상품의 다양성을 과소 식별하게 되지만, 반대로 HS 10단위를 이용해 비교하는 경우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한 HS코드의 개정에 따른 변화로 진입 및 퇴출 품목을 과다 식별하게 된다.

57) 전체 수입에 대해 HS 10단위 기준으로 다양성을 정의한 경우 2002년과 2021년의 퇴출다양성은 4만 1,949개(144억 달러), 진입다양성은 11만 159개(2,713억 달러)로 다양성 수는 2배 이상, 수입액 규모는 4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공통다양성은 5만 8,763개이므로 2002년의 다양성(공통+퇴출)은 10만 712개, 2021년의 다양성(공통+진입)은 16만 8,922개가 된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2002년과 2021년 사이의 다양성 변화(HS 6단위 기준) 및 그 수입액 규모를 살펴보면, 퇴출다양성은 1,419개(3억 5,000만 달러), 진입다양성은 7,940개(46억 3,000만 달러)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공통다양성은 3,910개로 진입다양성의 수보다 오히려 낮았는데, 실제 수입액은 공통다양성이 2002년 91억 2,000만 달러(비중 96.4%), 2021년 343억 달러(88.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퇴출다양성에 대한 수입액 비중은 2002년 3.6%에 불과했으나, 진입다양성의 비중은 2021년 11.9%에 달했다. 즉 농축수산물의 다양성 증가에는 상당한 규모의 수입액 증가가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 2. 한국 농축수산물 수입의 상품 다양성 비교: 2002년 vs 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개)

다양성 구분	수입액				다양성 (HS6+국가) ⁵⁸⁾	품목(HS6) 당 국가 수	
	2002년	(비중)	2021년	(비중)		2002년	2021년
공통	9,120	(96.4)	34,297	(88.1)	3,910	7.0	7.0
퇴출	345	(3.6)	-	-	1,419	2.9	-
진입	-	-	4,626	(11.9)	7,940	-	12.9
전체	9,465	-	38,923	-	13,269	7.5	16.7

주: 공통은 2002년과 2021년 모두 존재하는 다양성, 퇴출은 2002년에만 존재하는 다양성, 진입은 2021년에만 존재하는 다양성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류 수입에서의 2002년 대비 2021년 상품 다양성 변화를 살펴보면 진입다양성이 353개로 공통다양성의 수(200개)를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실제 수입은 공통다양성에 대해 10억 1,000만 달러(비중 94.3%)인 반면, 진입다양성에 대해서는 6,000만 달러에 불과해, 주류 수입액의 증가는 대부분 기존에 수입이 이루어졌던 품목들에 대해 나타났다. 한편 퇴출다양성은 24개이며 관련 수입액은 미미했다.

58)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다양성을 정의한 경우 2002년과 2021년의 퇴출다양성은 3,658개(46억 5,000만 달러), 진입다양성은 1만 5,068개(173억 1,000만 달러), 공통다양성은 4,001개이다.

부록 표 3. 한국 주류 수입의 상품 다양성 비교: 2002년 vs 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개)

다양성 구분	수입액				다양성 (HS6+국가) ⁵⁹⁾	품목(HS6) 당 국가 수	
	2002년	(비중)	2021년	(비중)		2002년	2021년
공통	323	(99.9)	1,013	(94.3)	200	14.3	14.3
퇴출	0*	(0.1)	-	-	24	2.4	-
진입	-	-	62	(5.7)	353	-	23.5
전체	324	-	1,075	-	577	14.9	36.9

주: 1) * 38만 달러.

2) 공통은 2002년과 2021년 모두 존재하는 다양성, 퇴출은 2002년에만 존재하는 다양성, 진입은 2021년에만 존재하는 다양성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와인 수입에 대하여 2002년 및 2021년 상품 다양성 변화를 비교하면 진입 다양성은 100개(HS 10단위 기준 200개)로 공통다양성(68개; HS 10단위 기준 113개)의 수를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수입액에서는 공통다양성에 대한 수입의 비중이 2021년 99.4%에 달해, 실질적인 수입의 증가는 거의 모두 기존에 수입이 이루어지던 국가와 품목에 대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록 표 4. 한국 와인 수입의 상품 다양성 비교: 2002년 vs 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개)

다양성 구분	수입액				다양성 (HS6+국가) ⁶⁰⁾	품목(HS6) 당 국가 수	
	2002년	(비중)	2021년	(비중)		2002년	2021년
공통	29	(100.0)	557	(99.4)	68	17.0	17.0
퇴출	0	(0.0)	-	-	2	1.0	-
진입	-	-	3	(0.6)	100	-	25.0
전체	29	-	560	-	170	17.5	42

주: 공통은 2002년과 2021년 모두 존재하는 다양성, 퇴출은 2002년에만 존재하는 다양성, 진입은 2021년에만 존재하는 다양성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9)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다양성을 정의한 경우 2002년과 2021년의 퇴출다양성은 41개(500만 달러), 진입다양성은 592개(7,600만 달러), 공통다양성은 269개(2021년 기준 10억 달러)이다. 주류의 경우 2002~21년간 HS코드의 변경이 적었던 만큼, HS 6단위 기준 통계와 HS 10단위 기준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0)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다양성을 정의한 경우 2002년과 2021년의 퇴출다양성 9개(4만 달러), 진입다양성은 200개(800만 달러), 공통다양성은 113개(2021년 기준 5억 5,000만 달러)이다. 와인의 경우 2017년 3종의 세번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S 6단위 기준 통계와 HS 10단위 기준 통계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한국의 와인 수입 현황

가. 일반 현황

2002~21년 한국의 와인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교역이 침체되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와인 수입액은 2004년 5,000만 달러를 돌파하고 2007년 1억 5,000만 달러, 2017년 2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억 3,000만 달러, 2021년 5억 6,000만 달러로 더욱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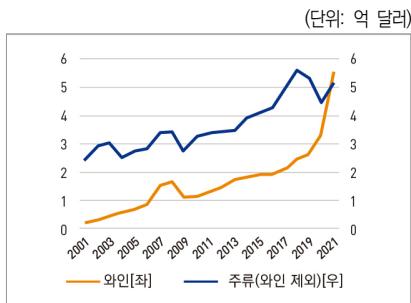
한국 와인 수입액의 2002~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6.8%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의 수입증가율(7.6%)이나 농축수산물의 수입증가율(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비교 대상의 범위를 더욱 좁히면 음료(HS_22) 수입은 연평균 7.2% 증가, 주류 수입은 연평균 6.5% 증가해, 와인 수입의 증가세가 전체 수입뿐 아니라 관련 품목군에 대한 수입 증가세도 상회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주류의 경우 와인을 제외하고 다른 주류들의 수입으로 국한하면 2002~21년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불과해 와인과의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한국 와인 수입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전년대비 3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2010년대 들어서에는 10% 내외의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기에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증가율이 전년대비 69.6%에 달했다. 반면 다른 주류들의 경우 수입액 증가세가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와인에 비해 낮았고, 최근 2019년(-5.9%)과 2020년(-15.0%)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면서 와인의 급증 추세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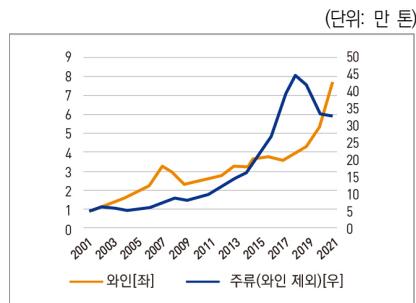
수입 물량 기준으로 한국 와인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2~21년 연평균 10.5%로 역시 큰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수입량 증가율은 수입액 증가율(16.8%)보다

다소 낮은데, 이는 와인의 수입단가가 과거에 비해 최근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 전체 수입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3%, 농축수산물 수입량은 2.2%, 음료 수입량은 7.1%로, 앞서 살펴본 수입액 증가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와인 수입량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와인을 제외한 다른 주류 수입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9.5%에 달해 수입액의 경우와 달리 와인과 다른 주류 간 수입량 증가세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다른 주류의 경우 수입액 증가보다 수입량의 증가가 컸으며, 이는 와인의 경우와는 반대로 수입단가는 오히려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부록 그림 7. 와인 수입액 추이



부록 그림 8. 와인 수입량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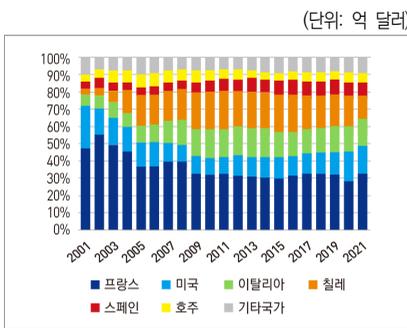
나. 상대국별 현황

한국 와인 수입에서 주요 6개 상대국(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칠레, 스페인, 호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21년 누계 92.0%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기간 별로 차이는 있으나 프랑스산 와인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연간 30% 이상이며, 미국·이탈리아·칠레산 와인의 비중도 각각 연간 15% 내외로 높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FTA 체결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까지 프랑스산 와인의 수입 비중이 50%에 달하는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 FTA 정책에 힘입어 와인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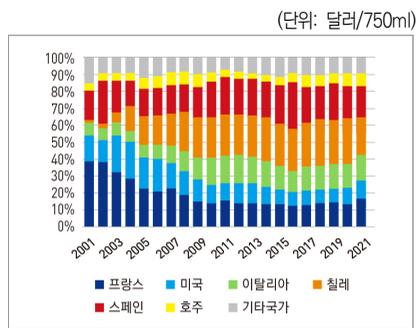
터는 칠레산 와인,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탈리아산 와인의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 특히 칠레산 와인의 수입은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부터 크게 증가해 2009년부터는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인 2021년에는 다른 상대국들과 비교해 수입이 적게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13.4%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FTA 정책 이전까지는 와인애호가 중심으로 전통적 와인의 대표적인 프랑스산 와인 수입이 주를 이루었다가, 한·칠레 FTA 발효를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칠레산 와인이 수입되면서 국내 와인 소비자의 저변이 확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미국 및 EU와의 FTA 발효로 와인 수입 국가와 와인 종류의 다양성도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상대국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2~21년 누계 기준 칠레산(23.0%)과 스페인산(20.0%)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2021년 기준 칠레산의 비중이 22.2%, 스페인산의 비중은 18.4%이다. 반면 최대 수입 상대국인 프랑스로부터의 수입량 비중은 2002~21년 누계 16.4%(2021년 16.8%)로 수입액 기준의 비중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와인으로 칠레산과 스페인산이 수입 되는 반면 프랑스산 와인은 고가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부록 그림 9. 상대국별 와인 수입액 비중



부록 그림 10. 상대국별 와인 수입량 비중



주: 1) 상대국 순서는 2021년 수입액 기준.

2) 기타 국가는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독일, 남아공 5개국이 대부분을 차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다른 주류와의 비교

지난 20년간 한국의 와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주류 수입에서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증가했다. 와인의 비중은 2002년 9.1%에서 2005년 19.7%, 그리고 2007년 30.6%로 크게 높아졌고, 이후에도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1%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최근 2020년 및 2021년에는 와인 수입이 더욱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각각 42.6% 및 52.4%에 달해 주류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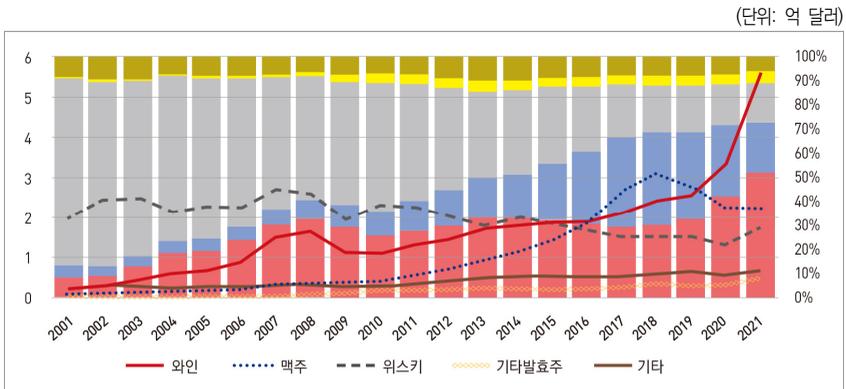
이러한 와인 수입 비중의 증가에는 다른 주류의 수입 변화 역시 영향을 미쳤다. 위스키 수입의 경우 과거 2000년대 초까지 주류 수입액에서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0년대 이후 위스키 수입이 감소하면서 비중도 10%대로 하락했다. 2002년 한국의 위스키 수입액은 2억 5,000만 달러였는데, 이때 와인 수입액은 2,943만 달러, 맥주 1,280만 달러, 꼬냑 1,925만 달러 등에 불과해 위스키 수입의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이후 위스키 수입은 비록 연도별 부침은 있으나 2002~11년 평균 2억 3,000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대에 위스키 수입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7년에는 1억 5,000만 달러로 수입액이 낮아졌으며, 최근 2021년 역시 1억 8,000만 달러로 과거 2000년대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위스키 수입이 정체 및 완만한 하향세를 보인 반면, 와인을 비롯한 다른 주류들의 수입은 증가하면서 한국의 주류 수입에서 위스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76.6%, 2009년 50.7%, 2015년 31.6%, 2021년 16.3%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맥주의 경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수입이 증가해왔다. 다만 수입액 규모로는 2005년까지 2,000만 달러 미만, 2010년까지 5,000만 달러 미만으로 크지 않았고, 주류 수입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2년 4.0%, 2010년 10.0%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특히 중·후반에 이르러 맥주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2014년 수입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주류 수입에서 맥주의 비중 역시 19.5%로 높아졌고,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7년 2억 6,000만 달러(비중 37.1%), 2018년 3억 1,000만 달러(비중 38.4%)로 주류 중 한때 최대 수입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2018년을 정점으로 최근에는 증가세가 꺾이면서 2021년 2억 2,000만 달러의 수입액(비중 20.8%)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와인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모든 수입이 감소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2000년대와 2010년대 전반에 걸쳐 매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수입이 정체 및 감소세를 보인 위스키, 혹은 반대로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맥주의 추이와는 다른 특징적인 양상이다. 즉 다른 주류의 수입 추이와 비교해도 와인 수입은 지난 20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수입액 규모는 2015년 위스키를 추월하고 2020년 맥주를 추월하면서 2021년 기준 전체 주류 수입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부록 그림 11. 한국의 품목별 주류 수입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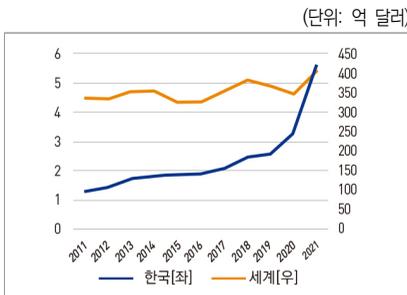


주: 1) 왼쪽 축은 수입액, 오른쪽 축은 전체 주류 수입액에서 해당 품목의 비중.
 2) 와인 HS_2204, 맥주 HS_2203, 위스키 HS_220830, 기타 발효주 HS_2206 기준.
 3) '기타 발효주'에는 사과주, 배주, 청주, 약주, 탁주 등이 포함; '기타'에는 베르무트, 꼬냑, 럼, 진, 보드카, 리큐르 등이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2. 12. 23)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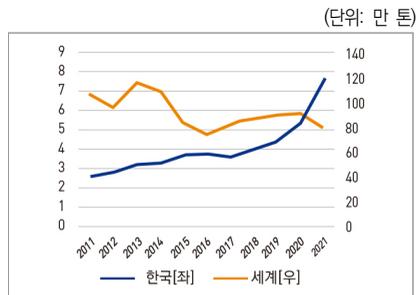
라. 세계 및 다른 국가와의 비교

한국의 와인 수입은 다른 품목과의 비교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와인 수입과 비교해도 가파른 성장을 보여왔다. 최근 10년간(2012~21년) 한국 와인 수입액은 연평균 16.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세계 모든 국가의 와인 수입액 증가는 연평균 2.2%에 불과했다.⁶¹⁾⁶²⁾ 이러한 차이는 최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0년 세계 와인 수입액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34억 9,000만 달러, 2021년 수입은 전년대비 16.9% 증가한 40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와인 수입액은 2020년 27.3%, 2021년 69.6% 증가했다. 이것으로 보아 한국 와인 수입 시장의 규모는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량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 2012~21년 한국의 와인 수입량은 연평균 11.8% 증가했는데, 세계의 와인 수입량은 오히려 연평균 2.2%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인 2021년 한국의 와인 수입량은 16.9% 증가했으나, 세계 와인 수입량은 12.7% 감소하였다.

부록 그림 12. 한국과 세계의 와인 수입액



부록 그림 13. 한국과 세계의 와인 수입량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3. 1. 2)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1) 2021년 한국 와인 수입이 특별히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1~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0.7%, 세계의 증가율은 0.4%로 차이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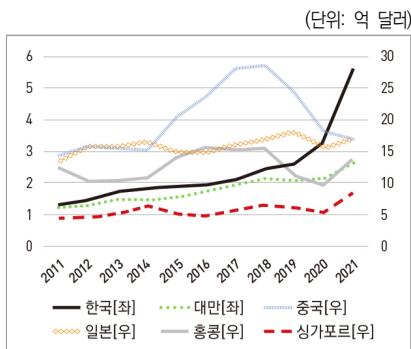
62) 연평균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의 계산이 첫 시점과 마지막 시점의 값에만 의존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을 이용해 한국과 세계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2~16년 및 2017~21년간 수입액의 증가율 계산: 한국 81.6%, 세계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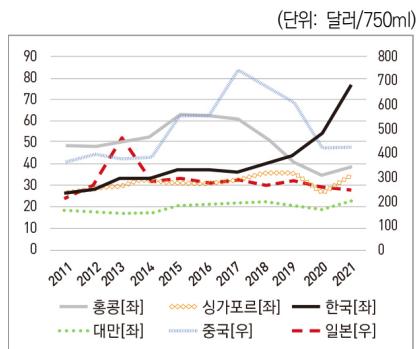
② 2012~21년 각 연도별 전년대비 증가율의 단순 평균값 계산: 한국 17.4%, 세계 2.5%.

한국의 와인 수입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변국들의 2012~21년 와인 수입액 기준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0.7% 및 0.9%에 불과했고,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3.1%와 6.7%로 한국(16.0%)에 비하면 낮았다. 주변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만의 2012~21년 연평균 증가율 역시 8.2%로 크게 높지는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수입량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싱가포르(2.4%)와 대만(3.4%)이 비교적 높았고 일본(-0.9%)과 홍콩(-2.1%)⁶³⁾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부록 그림 14. 한국과 주변국의 와인 수입액 추이



부록 그림 15. 한국과 주변국의 와인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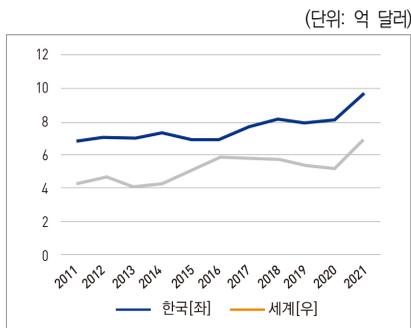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3. 1. 2)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 세계 와인 수입액 및 물량 자료를 이용하여 1병(750ml)당 수입단가를 계산하면 2011년 4.7달러에서 2021년 6.9달러로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수입단가(7.0달러에서 9.7달러)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201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는데, 2021~21년 연평균 2.5달러 수준의 수입단가 차이가 있었다. 다만 수입단가 상승세 측면에서는 2012~21년 평균적으로 한국이 3.8% 상승하였는데, 세계 역시 4.5% 상승하면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주변국들의 와인 수입단가는 중국(-0.1%)과 일본(1.8%)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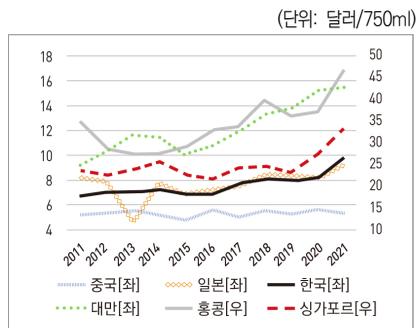
63) 홍콩의 경우 UN Comtrade 자료에서 2012년 수입량이 누락되어 있어 2011년 수입량으로 대체, 2011~21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함.

서 상승세가 작았고, 홍콩(4.9%), 싱가포르(4.3%), 대만(4.6%)은 세계 수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최근 5년(2017~21년)과 직전 5년(2012~16년)의 와인 수입단가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1.7% 상승, 세계는 23.2% 상승했는데, 이러한 계산에서는 중국(25.3%)과 일본(26.4%)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반대로 홍콩(62.6%)과 싱가포르(13.4%)가 큰 차이를 보였다.

부록 그림 16. 한국과 세계의 와인 수입단가



부록 그림 17. 한국과 주변국의 와인 수입단가



주: 수입단가 계산에 필요한 수입량 데이터 중 2012년 홍콩, 2016년 중국, 2018년 대만, 2019년 싱가포르 자료들의 경우 원 자료에서 누락되어 보고되었으며, 이 수치들은 직전년도 수치를 이용하여 보정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3. 1. 2)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 세계 와인 수입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39%에서 2019년 0.71%로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2020년 0.94%, 2021년 1.37%로 더욱 높아졌다. 수입량 기준으로 한국의 비중은 2011년 0.24%, 2019년 0.48% 그리고 2020년 0.60% 및 2021년 0.97%로 금액 기준보다는 낮으나 비슷한 규모로 비중이 높아졌다. 다만 세계 총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2021년 수입액 기준 2.8%)을 감안하면, 한국의 와인 수입 규모는 아직 그렇게 큰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주류 소비 비중이 크다는 점, 와인이 경기변동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 일반 소비재라는 점, 그리고 2010년대 세계의 와인 수입은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근 한국의 와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계수 추정치

부록 표 5. 변수별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와인수입액 ^a	1.90e+07	3277387	1.28e+07	2.58e+07
와인로그단위가격 ^a	1.758	0.101	1.479	1.922
와인로그가격 ^b	6.623	0.154	6.194	6.868
로그일인당GDI(와인) ^b	8.131	0.033	8.074	8.168
성인인구수(와인) ^c	42563.57	470.08	41899	43173
담배소비비중	0.0022	0.0007	0.0015	0.0037
담배로그단위가격 ^b	7.000	0.839	5.719	8.410
담배로그가격 ^b	7.318	0.616	6.453	8.419
로그일인당GDP(담배) ^b	6.915	1.012	4.848	8.147
성인인구수(담배) ^c	33314.63	6082.81	22299	42733

주: 상첨자 a, b와 c 변수의 단위는 각각 미국달러, 원(한화)과 1만 명이다.

부록 표 6. 재화별 실증모형 계수 추정치

종속변수	와인		담배	
	C	Lnv	w	Lnv
로그재화가격	-1.15e+6 (3.13e+6)	0.543*** (0.066)	0.0004*** (0.0001)	0.689*** (0.058)
Ln _x	-9.93e+7 (7.16e+7)	0.862 (1.512)	-0.0009* (0.0005)	0.342* (0.178)
성인인구수	3426.207 (5509.89)	-0.000 (0.000)	-6.57e-08 (1.70e-07)	-0.000 (0.000)
t	5.19e+6* (2.73e+6)	0.087 (0.060)	0.000 (0.000)	-0.011 (0.037)
t ²	-6779.93* (3735.84)	-0.000 (0.000)	5.20e-07 (8.47e-07)	0.001** (0.000)
Lag(종속변수)	0.092 (0.153)	-0.098 (0.088)	0.162 (0.108)	-0.043 (0.065)
상수항	-3.06e+08 (3.11e+08)	-19.917*** (7.020)	0.006*** (0.002)	0.898 (0.578)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상첨자 ***, **, *는 각각 1%, 5%, 10%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낸다.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Consumer Welfare: A Focus on Quality Diversity

Chul Chung, Bonggeun Kim, and Minchirl Chu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domestic price changes due to external shocks such as trade liberalization or global inflation on quality diversity and consumer welfare. Free trade agreements (FTAs) can reduce the prices of imported goods through tariff elimination or reduction, making it crucial to evaluate academically and in terms of policy how this price reduction affects consumer welfare. In contrast to prior literature on trade liberaliz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quality diversity in explaining its impact on consumer welfare. We focus on how consumers' qualitative responses to price changes, such as selecting high-quality products when prices decrease due to tariff reductions or responding to price increases due to tobacco taxes by adjusting the quality of their purchases, can influence consumer welfare. This study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consumer welfare.

Using time-series data on wine and cigarette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estimated price elasticities and separated them into consumer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ponses to price chang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qualitative margin accounts for as much as 40% of the total, demonstrating that consumers' qualitative responses to price changes are quite significant. We also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umer behavior mechanism of quality shading in response to price

increases for both wine and cigarette consumption, suggesting that consumers' qualitative responses are as important as their quantitative responses. Moreover, we found that price reductions not only increase the consumption quantity of the same product but also lead to a shift to higher quality products, further enhancing consumers' welfare. For the first time in the literature, we analyzed qualitative margins by income level and found that the price elasticity is higher for lower-income consumers, and most of it can be attributed to qualitative responses. Thes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consumers can adjust their spending on a particular good through qualitative adjustments while maintaining their overall consumption, particularly in response to rapid inflation. This response mechanism is particularly more effective for low-income households.

Similarly, this study confirmed the existence of consumer quality adjustment responses to income changes through income elasticity analysis, with the size being larger among low-income households. Qualitative responses to income changes demonstrate that consumers can adjust their expenditure by maintaining the consumption level of staple goods such as rice or pork while reducing the expenditure amount, particularly in situations of declining real income during economic crisis. As with the analysis of price changes, our results suggest that this consumer behavioral mechanism in response to income changes can be also more effective for low-income househol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rade liberalization's expansion of quality diversity has a positive impact on consumer welfare by strengthening consumer mechanisms, particularly in response to inflation, drastic price changes, and real income declines during economic crises. These results provide a novel perspective on trade liberalization's contribution to consumer welfare, with the analyzed quality diversity effect distinct from the product diversity described in traditional trade literature, thus representing a new source of gains from trade. Consequently, when assessing trade liberalization's economic

impacts, the quality diversity factor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addi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quality diversity expansion for consumers can be achieved for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not only agricultural production policies but also trade liberalization. The resulting policy implications are significant for both average consumers and low-income groups in terms of welfare.

However, the qualitative response of consumers to price changes may not always improve policy efficacy, particularly for certain types of goods, such as harmful goods taxes, where product quality diversity may not necessarily have a positive impact and can even have a negative one. For instance, if consumers switch to low-quality cigarettes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cigarette taxes, the quality-downgrading response may ultimately have adverse effects on health indicators related to cigarette taxes. Furthermore, when discussing harmful goods taxes, such as soda taxes and fast-food taxes, to combat obesity problems, the expansion of quality diversity can have the opposite effect, increasing the supply of unhealthy low-quality carbonated drinks or fast food. These discussions hold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indicating that to achieve health policy objectives through harmful goods tax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low-quality goods from entering the market, which could pose greater health risks. Finally, empirical research follow-up is needed for staple goods such as rice or pork, with future studies needing to consider consumers' qualitative responses when using price elasticity.

<책임>

정 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미국 Georgia Tech 경제학부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cch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공저, 2017)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공저, 2018) 외

<공동>

김봉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 E-mail: bgkim07@snu.ac.kr)

저서 및 논문

“The price elasticity of quantity, and of quality, for tobacco products”(*Health Economics*, 2019)

“Quality, Quantity, and Spatial Variation of Price: Back to the Bog”(*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019) 외

정민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mcch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공저, 2020)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공저, 2021) 외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22년

- 22-01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김규판
- 22-0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 정형곤·이아라
- 22-03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 Shahid Yusuf and Danny Leipziger
- 22-04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 김준동
- 22-05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 문지영·이효진
- 22-06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 노운재·김민희·김소은
- 22-07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 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 박지원·이예림
- 22-08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양평섭·김홍원
- 22-09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 이천기
- 22-10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방향: 핵심광물과 수소를 중심으로 / 조승진·신민이
- 22-11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이철원·김초롱
- 22-12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 허재철
- 22-13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오수현·고보민
- 22-14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강민지
- 22-15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 정 철·김봉근·정민철

■ 2021년

- 21-0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이현진·이철원·윤형준
- 21-02 디지털전환 시대의 국경 간 전자조달 논의동향과 시사점 / 박지현
- 21-03 미·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중 경제협력 방향 / 양평섭·최지원
- 21-04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유정·한하린

- 21-05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 조동희·오테현·이현진
- 21-0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 박혜리·박지현
- 21-07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박순찬
- 21-08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 서진교
- 21-09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 조동희·장영욱·이현진·윤형준
- 21-10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 이재호

■ 2020년

- 20-01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 김홍원·김주혜
- 20-02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 정성춘
- 20-03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 박민숙·이효진
- 20-04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 이규엽·김현수
- 20-05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 이규엽·엄준현

■ 2019년

- 19-01 일본 임금정책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정성춘·권혁욱
- 19-02 How to Position South Korea in a Dramatically Changing World / Danny Leipziger and Carl Dahlman
- 19-03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 분석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 정민현·민지영
- 19-04 상품공간 모형을 활용한 한·중·일 산업구조 분석 및 시사점 / 이보람·손원주
- 19-05 외화예금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 강태수·김경훈·양다영
- 19-06 미인과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최유정·김범환·김미림
- 19-07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 이형근·나수엽
- 19-08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중심으로 / 엄준현
- 19-09 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 조동희·윤여준·문성만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물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Consumer Welfare: A Focus on Quality Diversity

Chul Chung, Bonggeun Kim, and Minchirl Chung

우리나라가 체결한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이 과연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흔치 않다.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품목의 다양성 확대와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자들의 품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품질 다양성과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ISBN 978-89-322-2497-8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